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석사학위논문

드라마 <스카이캐슬>에 나타난
교육사회적 욕망의 구조:
르네 지라르의 욕망의
삼각형이론을 중심으로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행정및교육컨설팅전공

김진영

2020년 8월

[국문초록]

드라마 <스카이캐슬>에 나타난 교육사회적 욕망의 구조:
르네 지라르의 욕망의 삼각형이론을 중심으로

김진영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행정및교육컨설팅 전공

지도교수 양진건

<스카이캐슬>은 최고 시청률이 23.8%에 이를 정도로 인기를 끈 드라마이다. 이렇게 높은 시청률을 기록 했다는 것만으로도 이 드라마를 단순히 재미있는 콘텐츠 정도로 넘어 갈 수는 없다. 왜냐하면 이 드라마의 소재는 ‘교육’이었으며, 우리사회에서 ‘교육’은 여러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드라마 <스카이캐슬>하면 늘 따라 붙는 내용이 ‘교육열’ 또는 ‘욕망’이라는 단어다. 드라마 <스카이캐슬>은 ‘욕망’을 통해 교육열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우리사회를 관통하는 욕망의 구조가 무엇이며, 이는 어떻게 한국사회에서 재현되고 있는가를 밝혀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로 첫째, 르네 지라르의 “욕망의 삼각형 이론”은 무엇인가? 둘째, <스카이캐슬>에 드러난 교육적 욕망은 어떻게 구조화 되었는가? 셋째, <스카이캐슬>의 교육적 욕망의 구조와 한국교육의 현실과는 어떤 관련이 있는가? 넷째, <스카이캐슬>에

서 드러난 교육적 욕망의 구조가 시사하는 바는 무엇인가? 로 제시하였다.

연구 문제에서 제시한 것처럼 욕망의 발생은 르네 지라르의 ‘욕망의 삼각형’ 이론으로 밝혔다. 르네 지라르의 욕망의 삼각형이론은 드라마 속 인물 각각이 가진 욕망의 발생 구조를 파악 할 수 있으면서도, 또 인물간의 삼각형을 통해 서로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받고 있는지 파악하기에 유용했다. 삼각형의 각 꼭지점은 욕망하는 주체와 주체에게 욕망을 암시하는 중개자, 주체와 중개자의 욕망의 대상이 삼각형 형태로 나타난다. 이를 교육의 영역에 적용하여 교육에 대한 사람들의 욕망이 어디서 발생하는지를 살펴보았다.

욕망의 삼각형에서 주체인 인간의 욕망은 반드시 매개자의 욕망을 모방한다. 즉, 인간의 욕망은 중개자에 의해 간접화된 욕망으로 스스로 발생하지 않는다. 여기서 중개자는 사회적 기호를 획득하려는 인간의 욕망이 구조화된 사회구조이며, 이는 사회구조가 인간의 개개인의 욕망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교육사회학 관점으로 접근 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인간은 사회의 욕망 즉, 지위, 명예, 학력 등이라는 기호를 획득하기 위한 욕망이 암시되어 이것을 획득하고자 한다. 사회는 이러한 사회적 기호를 균등하게 분배하기 위해 ‘시험’이라는 제도를 마련해 왔다. 자격이 되는 모두에게 평등한 기회를 줌으로써 사회의 안정을 꾀하고 인재를 선발하려고 했던 것이다. 과거 한국 사회에서는 이러한 시험 과정이 ‘과거제’였으며 현대사회에서는 ‘대학 입시’가 되었다. 과거부터 현대까지 제도와 목적은 달라져왔지만 시험에 합격하기 위한 방법이 ‘교육’이라는 점은 변하지 않았다. 사회의 기호를 획득한다는 목적을 가진 교육은 교육자체가 아닌 수단으로 전락해버렸고, 부모의 개인적인 혹은 가족의 공통적인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도구로써 자식의 교육에 대한 욕망이 발생되었다. 이렇게 생겨난 욕망은 부모의 마음 깊은 곳에서 스스로 자라난 욕망이라기 보단 사회의 욕망을 모방한 욕망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를 위해 르네 지라르의 이론을 분석하고, 선행연구를 통해 사회구조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교육열을 분석하였으며 드라마 대본집을 통해 드라마 속 인물들의 욕망을 분석하였다. 주로 대사를 직접 인용하거나, 지문들을 바탕으로 각 등장인물들이 바라는 욕망이 무엇인가를 도출 하였으며, 이를 교육과 연결시켜, 교육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분석하였다. 등장인물 개개인의 욕망을 분석

후 공통된 점을 유형화하여 한국사회에서 나타나는 교육열의 현상을 도출하였다.

삼각형 구도로 설명되는 등장인물의 유형과 삼각형 구도를 벗어나는 등장인물, 그리고 그 둘 사이를 방황하는 과도기적 유형으로 나누어 한국사회에서 나타나는 교육열의 유형을 살펴보았다. 특히 삼각형 구도로 나타나는 교육열에서 사람들이 얻고자 하는 기호가 무엇인지 밝혀내기 위해 선행연구 분석을 참고하여 크게 두 가지 유형을 가져왔으며, 이는 가족의 명예를 유지하기 위한 교육열과 자신의 지위를 상승시키려는 지위지향적 교육열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마지막으로 삼각형의 구도를 벗어난 유형을 정리하여 작가가 바라는 이상적인 교육형태가 무엇인가도 짚어 보았다.

본 연구는 교육사회학적 관점을 통해 한국사회의 교육열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한국사회의 교육열은 한국사회의 교육구조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며, 더 나아가 한국사회의 교육열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책을 도출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주제어 : 르네 지라르, 욕망의 삼각형, 교육열, 스카이캐슬, 욕망

목 차

국문초록	i
I. 서 론	1
II. 이론적 배경	5
1. 르네 지라르의 욕망의 삼각형	5
1) 모방과 욕망의 삼각형	5
2) 외면적 간접화와 내면적 간접화	8
2. 한국의 교육열	10
1) 욕망으로 나타나는 교육열	11
2) 현상으로 나타나는 교육열	14
3. 르네 지라르의 ‘욕망의 삼각형’ 이론과 교육열의 관계성	17
III. 연구방법	20
1. 인물욕망 분석	21
2. 교육열 현상 분석	21
IV. 드라마 <스카이캐슬>에 드러난 교육욕망의 구조	22
1. 드라마 <스카이캐슬>의 줄거리	22
1) 주요 등장인물 등장과 이명주의 죽음	22
2) 등장인물의 교육적 욕망이 표출	23
3) 등장인물의 각성과 욕망의 삼각형 구도의 변화	24
4) 삼각형을 깨고 나온 등장인물과 새로운 가족의 등장	25
2. 인물관계도 및 등장인물 소개	25
1) 한서진·강준상 가족	26
2) 이명주·박수창 가족	27

3) 노승혜·차민혁 가족	28
4) 진진희·우양우 가족	28
5) 이수임·황치영 가족	28
6) 김주영	29
3. 주요 등장인물별 욕망구조 분석	29
1) 개인욕망 실현과 가족 명예유지를 위한 욕망유형 : 한서진·강준상 가족 ...	30
2) 가족 명예유지를 위한 욕망유형 : 이명주·박수창 가족	35
3) 교육욕망의 구조가 변화하는 유형 : 노승혜·차민혁 가족	36
4) 교육욕망의 구조가 변화하는 유형 : 진진희·우양우 가족	40
5) 교육자체가 목적인 욕망유형 : 이수임·황치영 가족	41
4. 드라마 속 인물의 욕망 형태	42
V. 드라마 <스카이캐슬>에서 재현한 한국의 교육열	45
1. 르네 지라르의 모방에 의한 교육열	45
2. <스카이캐슬> 속 드러난 한국의 교육적 욕망의 구조	47
1) 교육의 도구화 유형	48
(1) 가문의 명예를 유지하기 위한 교육	48
(2) 지위지향적 교육열 (학력주의)	51
2) 교육 목적 부재 유형	52
3) 교육 본질 추구 유형	53
VI. 결론 및 시사점	55
참고문헌	59
Abstract	62

표 목차

[표 II-1] 욕망으로 나타나는 교육열 관련 선행연구 분석	14
[표 II-2] 현상으로 나타나는 교육열 관련 선행연구 분석	16
[표 IV-1] 등장인물별 교육의 목표 및 욕망의 강도 분석	44

그림 목차

[그림 II-1] 르네 지라르의 ‘욕망의 삼각형’ 구도	7
[그림 II-2] 돈키호테의 욕망의 삼각형	9
[그림 II-3] 한국사회의 교육적 욕망의 구조	18
[그림 III-1] 한국의 교육열 구조	20
[그림 IV-1] <스카이캐슬> 등장인물 관계도	26
[그림 IV-2] 한서진·강준상 가족의 욕망의 구조	32
[그림 IV-3] 강예서의 욕망의 삼각형	33
[그림 IV-4] 김혜나의 욕망의 구조	34
[그림 IV-5] 김혜나의 욕망의 삼각형	35
[그림 IV-6] 이명주·박수창 가족의 욕망의 구조	36
[그림 IV-7] 노승혜·차민혁 가족의 욕망의 구조	38
[그림 IV-8] 차민혁의 욕망의 삼각형	39
[그림 IV-9] 진진희·우양우 가족의 욕망의 구조	40
[그림 IV-10] 이수임·황치영 가족의 욕망의 구조	41
[그림 V-1] <스카이캐슬> 속 욕망의 삼각형	46

I. 서론

자녀 교육과 관련한 한국 상류층의 교육적 욕망을 적나라하게 묘사한 JTBC 드라마 <스카이캐슬>(2019)이 최고 시청률을 23.8%를 기록(2019.02.01.기준, 닐슨 코리아)할 정도로 사회적인 관심을 끌었다. 드라마가 흥행을 한 이유로 무엇보다 한국사회의 최대 관심사인 교육 문제를 다루면서, 사람들의 내면에 숨겨진 욕망을 적나라하게 드러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다.

어느 나라보다도 윤리성을 강조하는 한국사회는 “마땅히 그래야 하거나, 또는 마땅히 그렇게 행하여야 하는” 당위론적 말들은 많이 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은 이율배반적으로 삶을 살면서 그럴듯하게 포장해왔을 따름이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스카이캐슬>은 바로 그 그럴듯한 포장 속에 감추어진 교육적 욕망을 들추어냈다는 점에서 문제적 드라마였던 것이다.

<스카이캐슬>과 같은 상황은 한국사회 곳곳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다. 그 중 하나가 “숙명여자고등학교 쌍둥이 자매 시험지 유출 사건”이다. 이 사건은 2018년 7월 중순에 실시된 숙명여자고등학교의 2학년 1학기 기말고사에서, 시험지 검토 및 결재 권한을 지닌 당시 교무부장의 두 딸이자 2학년 재학생인 쌍둥이 자매가 각각 문/이과 내신 성적, 전교 1등을 차지하면서 불거진 시험지 유출 사건이다(노컷뉴스, 2018.11.13.).

물론 이것은 한국사회에만 국한 된 문제는 아니다. 미국에서도 최근 유명 TV 스타와 할리우드 배우, 기업체 CEO 등이 연루된 대형 입시비리 사건이 터졌다. 이들은 자녀를 명문 대학에 보내기 위해 입시브로커에게 뒷돈을 주었고, 입시브로커는 대학입학시험 관리자들에게 부정입학을 청탁하였다(중앙일보,2019.03.13.).

이렇게 유사 사건들이 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한국의 경우는 그 교육적 욕망이 다른 어느 나라의 경우보다도 특이하다는 점에서 주목을 요한다. 한국은 바로 그 독특한 교육적 욕망 때문에 학생과 학부모가 사교육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교육부와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학생 수는 줄어들고 있지만 사교육비의 총액은 1년 전보

다 4% 이상 늘어난 21조원으로 집계되고 있다. 또한, 고소득층이 저소득층보다 5배 이상의 사교육비를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데일리, 2020.03.10.). 문제는 사교육비 지출의 양극화가 계속해서 심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사교육비 지출의 증가와 입시부정행위 등의 사건은 결국 명문 대학에 들어가 고자 하는 한국 사람들의 교육적 욕망이 반영된 대표적인 현상이다. 이는 한국사회가 전체적으로 공감하고 있고 공유하고 있는 공통된 욕망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다. <스카이크슬>은 바로 한국사회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공통적인 교육적 욕망을 현실감 있게 보여줬다는 점에서 화제의 드라마가 되었던 것이다.

본 연구는 교육사회학적 측면에서 한국사회가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교육적 욕망의 실체를 분석하기 위해 정신분석학자인 르네 지라르의 ‘욕망의 삼각형 이론’을 활용하고자 한다. 르네 지라르는 『낭만적 거짓과 소설적 진실』이라는 책에서 욕망의 구조를 소설 속 인물의 관계를 통해 설명한다. 소설 속 욕망은 주체와 중개자, 대상이 삼각형 구도로 나타나는 데, 그렇게 발생한 욕망은 자신의 내부에서 스스로 발생한 욕망이 아니라 누군가로부터 암시된 욕망이다. 즉, 자신이 욕망하는 대상은 타인의 욕망을 모방한 것이며, 사람들은 남의 욕망을 자신의 욕망이라 착각하여 이루고자 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공간 안에 있는 인물끼리는 같은 대상을 자신이 차지하기 위해 갈등이 생겨나기도 하며, 대상이 완전히 다른 공간에 있는 경우에는 중개자를 모방하여 대상에 이르는 것으로 끝나기도 한다.

욕망이 타인으로부터 비롯되었다는 것을 밝혔다면, 이러한 욕망이 교육과 연결되었을 때 어떤 형태의 구조가 발생하는 지 살펴봐야 한다. 교육에 대한 욕망도 이 삼각형 이론에 의하면 자연발생적인 것이 아니다. 누군가의 욕망이 교육 수요자인 주체에게 교육에 대한 욕망의 불을 지피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누군가의 욕망은 무엇일까.

교육열에 대한 여러 선행연구는 정신분석학자들의 연구를 통해 욕망의 구조를 분석하고, 교육적 욕망의 구조를 밝혀내고 있다. 강창동은 욕망은 사회적 기호를 얻기 위한 욕망이며, 사람들은 이를 얻기 위해 교육을 활용한다고 하였다(강창동, 2004). 여기서 사회적 기호는 권력, 지위, 돈, 명예 등이다. 즉, 사회적 기호를 획득하려는 욕망이 교육에 대한 욕망으로까지 이어지는 것이다. 교육에 대한 욕망

은 그 자체에 대한 욕망이라기보다는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써 나타나는 것이다. 교육이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었던 이유는 시험이라는 제도가 역사적으로 사회적 기호를 얻기 위한 정당한 경쟁 과정으로 인식되어 왔기 때문이다. 시험은 역사적으로 다양한 모습으로 변화하면서 인재를 선발하는 제도로 활용되었다. 그러나 시험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하여 성공을 위한 발판으로 삼으려는 욕망은 변하지 않았다. 사람들이 얻고자 노력하는 사회적 기호는 가족과 개인의 생존의 문제와 직결된다. 생물학적인 생존뿐만 아니라 이 사회에서 살아갈 때 누릴 수 있는 사회적 생존까지 포함한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욕망은 매우 강할 수밖에 없으며 이를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교육에 대한 집착도 강해진다.

이 드라마를 주목했던 이유는 교육문제를 다루었던 다른 드라마보다 한국사회가 갖고 있는 독특한 교육적 욕망을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그 어떤 것도 감수하겠냐?”는 입시 코디네이터의 대사처럼 한국에서는 교육 전면에 부모들이 있으며, 부모들이 자식의 성공을 위해서라면 그 어떤 것도 하게끔 만든다. 또한 대를 이어 의사 가문을 만들어야 한다는 설정이나, 자식의 성공이 부모의 성공으로 이어지는 구조, 아이들의 교육을 위한 엄마들의 모임 등은 한국사회에서 나타나는 특색한 교육문화이다. 대학입학의 성공이 한국사회에서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던 드라마이며, 한국사회에서 교육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사회적인 공감대를 확인 할 수 있었던 드라마였다.

현재 한국사회에서 사람들이 공유하는 공통된 욕망은 결국 명문 대학에 들어가고자 하는 욕망이고 명문 대학은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의 미래까지 보장해주고 있다는 것이 한국사회에서 공감하는 담론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교육사회학적 관점에서 인간의 욕망이 사회의 기호를 획득하고자 하는 사회구조를 매개로 하여 어떤 교육적 욕망을 드러내고 있으며, 이것이 한국사회에서 어떤 식으로 나타나고 있는지를 밝혀내는 것이다. 이를 위해 르네 지라르의 “욕망의 삼각형 이론”으로 욕망이 발생하는 원리를 밝혀내고, 드라마라는 사회 현상이 반영된 콘텐츠에 대입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 방법을 통해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먼저 정신분석학자가 주장하고 있는 이론적 근거를 통해 한국사회 구성원들이 가지고 있는 욕망이 무엇인가를

좀 더 명확하게 볼 수 있으며, 그러한 욕망이 어디서부터 나왔고 왜 나오게 된 것인지 밝혀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드라마 분석을 통해 작가의 메시지가 담겨있는 등장인물과 사건의 각 요소를 분석하여 현재 한국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유추해 볼 수 있다. 더불어 등장인물의 분석을 통해 현상을 분석하기에도 용이하며 또한 작가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교육에 대한 모습이 어떤 것인지도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TV드라마는 현실 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고 대중에게 강한 메시지를 전달한다는 점에서 본 연구자의 시도는 한국교육의 문제를 이해하는 새로운 출구가 되리라 본다.

본 연구의 문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르네 지라르의 “욕망의 삼각형 이론”은 무엇인가?
2. <스카이캐슬>에 드러난 교육적 욕망은 어떻게 구조화 되었는가?
3. <스카이캐슬>의 교육적 욕망의 구조와 한국교육의 현실과는 어떤 관련이 있는가?
4. <스카이캐슬>에서 드러난 교육적 욕망의 구조가 시사하는 바는 무엇인가?

II. 이론적배경

본 연구를 위해 선행연구를 크게 두 영역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먼저 연구의 핵심인 드라마 <스카이캐슬>이 드러내는 욕망을 구조화하기 위해 르네 지라르(René Girard)의 욕망의 삼각형 구조를 분석하는 선행연구를 살펴보았다.

특히 본 연구와 비슷하게 드라마 속 욕망을 분석한 연구를 중심으로 살펴보았으며, 그 외에도 르네 지라르의 관점에서 모방과 욕망을 분석한 논문 등을 분석하였다. 또한 『낭만적 거짓과 소설적 진실』의 번역서를 통해 삼각형 구조를 이해하고자 했다.

그리고 이러한 욕망의 구조를 교육과 연결시키기 위해 교육적인 욕구인 ‘교육열’에 대한 선행연구를 분석하였다. 교육열에 대한 선행연구는 여러 연구들을 종합하여 남미자 외(2019) 연구에서 언급했던 욕망으로 나타나는 교육열과 현상으로 나타나는 교육열로 나눈 후 공통점을 도출하여 정리하였다.

1. 르네 지라르의 욕망의 삼각형

르네 지라르의 가장 대표적인 이론은 욕망의 삼각형이론이다. 르네 지라르는 『낭만적 거짓과 소설적 진실』이라는 책에서 소설 속에 나타나는 욕망의 구조를 분석하였다. 그는 욕망의 구조를 삼각형의 형태로 구조화하였는데, 이를 욕망의 삼각형이라 한다. 먼저 욕망의 삼각형과 모방과의 관계를 통해 욕망의 삼각형이 무엇인가 살펴보고, 욕망의 삼각형이론의 핵심 내용인 내면적 간접화와 외면적 간접화가 무엇인가를 살펴보겠다.

1) 모방과 욕망의 삼각형

르네 지라르가 주장한 삼각형 욕망은 다음과 같다. 사람들의 욕망은 스스로

본인 내부에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중개자의 욕망이 암시되어 생겨나는 데, 주체는 이를 모방함으로써 욕망을 달성한다.

예컨대 아이들이 평소에는 관심이 없던 장난감을 누군가가 흥미를 보이기 시작하면 다른 아이들도 그 장난감에 흥미를 보이기 시작하는 상황 혹은 대중들이 각종 화장품을 광고하는 아름다운 배우를 보며 화장품을 욕망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그 배우의 피부를 욕망하는 현상을 들 수 있다. 이와 같이 르네 지라르는 주체의 욕망이 직접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욕망을 촉발시키는 중개자가 있다고 주장한다.

돈키호테는 자기 개인의 근본적인 특권을 아마디스를 위해 포기하였다. 그는 이제 자기 욕망의 대상을 선택하지 않는다. 그를 대신해서 욕망을 선택하는 것은 아마디스인 것이다. 아마디스의 제자가 된 돈키호테는 그에게 지시된 대상을 향하여, 또는 지시된 것처럼 보이는 대상을 향하여 덤벼들게 되는데, 이때 이 대상들은 기사도 전체의 모델이라 하겠다. 우리는 이 모델을 욕망의 중개자라고 부를 것이다. 기독교인으로서의 삶이 바로 예수그리스도의 모방이라는 의미에서, 기사로서의 삶은 바로 아마디스의 모방인 것이다(르네 지라르, 1976; 김치수·송의경, 2001: 40-41).

누군가가 물건을 갖고 싶어 하는 것은 물건의 가치 때문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가 그 물건을 가지려고 하기 때문이고, 누군가를 닮아가려 하는 것 역시 궁극적으로 그가 가진 것을 갖고 싶어 하기 때문이다. 개인이 무엇을 욕망한다는 것은 지금의 자기 자신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자신을 초월하고자 하는 욕구를 갖게 되는 것인데, 이때 초월은 자기가 욕망하는 대상을 소유함으로써 가능해진다는 것이다(박진희, 20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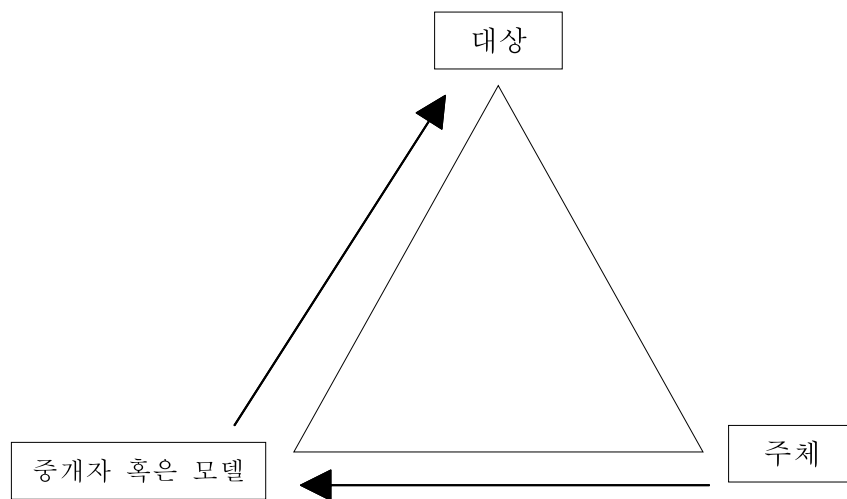
욕망의 대상은 언제나 제3자에 의해 지시되어야 한다. 어떤 대상의 욕망의 촉발은 근본적으로 이 욕망 주체의 자발적이고 직접적인 정신작용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욕망에 의해 비자발적이고 간접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의미이다.

즉, 인간은 그 자체로 바람직한 대상을 자연발생적으로 욕망하지 않으며, 자기 혼자서는 욕망할 수 없다. 이를 통해 르네 지라르의 ‘삼각형의 욕망’을 도출할 수 있다(김모세·서종석, 2015).

르네 지라르의 삼각형 욕망의 3요소는 ‘주체자’, ‘중개자 혹은 모델’, ‘대상’이다. 욕망의 구조는 욕망하는 주체가 곧바로 대상을 얻는 직선적인 관계가 아니라, 반드시 그 사이에 중개자 혹은 모델이 필요한 삼각형 구조라고 본다(Girard, 1965: Girard, 1978: ix; 41-42; Kirwan, 2004: 33, 이풍인, 2018: 221-222 에서 재인용).

주체가 타인의 욕망을 모방하거나, 중개자 혹은 모델이 되고자 모방하는 행위 두 경우 모두 ‘모방’을 욕망의 기본적인 속성으로 제시한다. 즉, 인간은 단순히 욕구를 충족시키는 데서 더 나아가 자신보다 나은 존재의 모방을 통해 본질적인 결핍을 채운다. 모방을 통해 타자의 존재속성을 나의 것으로 삼으려는 행위를 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언제나 모방의 모델은 자신보다 나아보이는 존재이며, 그를 모방한다는 것은 내가 지금-여기에서 누리고 있는 것보다 더 나은(혹은 더 높은) 존재의 가치(혹은 위상)에 도달하고자 하는 목적을 갖게 되는 것이다(김모세·서종석, 2016). 이때 주체의 욕망은 중개자에 의해 간접화되고 욕망의 주체와 대상 사이에는 중개자로 인한 ‘간접화 현상’이 일어난다. 이것을 도식화 하면 다음 [그림 II-1]과 같다.



[그림 II-1] 르네 지라르의 ‘욕망의 삼각형’ 구조

출처 : 르네 지라르 (1976), 김치수·송의경 역 (2001; 24-25)

2) 외면적 간접화와 내면적 간접화

주체자와 중개자 사이의 거리를 두고 간접화의 양상이 두 분류로 나뉜다. 먼저 외적중개자에 의한 외면적 간접화이다. 이는 욕망의 주체와 중개자 사이의 거리가 멀다. 돈키호테가 전설의 기사 아마디스를 모방하려 하는 양상이나, 청소년들이 아이돌 가수나 영화배우를 모방하려는 모습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중개자가 시간적이나 공간적으로 떨어져 있거나, 사회적 지위나 다른 요소들로 비교할 때 주체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상태여서 좀처럼 갈등과 폭력은 발생하지 않는다(이풍인, 2018). 욕망의 주체와 모델은 서로 다른 세계에 살기에 그 둘 사이에는 경쟁이 생길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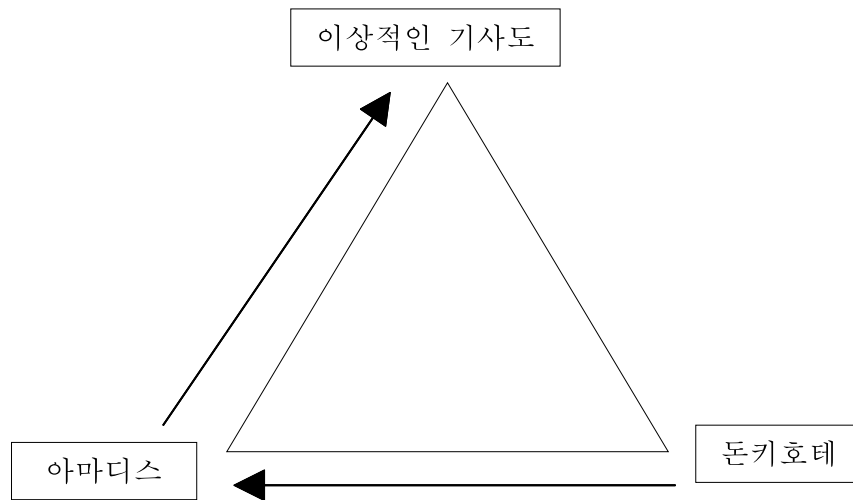
이때는 단순한 모방으로 끝난다. 르네 지라르는 『낭만적 거짓과 소설적 진실¹⁾』에서 외면적 간접화를 『돈키호테』라는 소설을 통해 설명한다. 대중에게 많이 알려진 소설 돈키호테에서는 아마디스를 너무 탐독한 나머지 스스로를 돈키호테라고 칭하며 모험을 떠나는 주인공이 나온다. 삼각형이론을 대입하면 돈키호테는 욕망을 느끼는 주체가 되고, 대상은 이상적인 기사도, 그리고 중개자는 상상 속 위대한 기사인 아마디스이다.

돈키호테는 아마디스에 의해 끊임없이 암시되는 욕망을 모방함으로써 이상적인 기사도를 이루려고 한다. 여기서 돈키호테와 아마디스 사이에는 어떠한 접촉도 있을 수는 없다. 왜냐하면 아마디스는 돈키호테의 상상 속 인물이기 때문이다. 돈키호테와 함께 다니는 산초판자 역시 자기가 통치하게 될 섬, 딸에게 공작부인의 칭호를 주는 것 등에 대한 욕망을 가지고 있다. 이런 종류의 욕망을 암시해 준 것은 함께 다니는 돈키호테이며, 이를 삼각형이론에 적용하면 산초는 주체이고 대상은 ‘섬’이나 ‘공작부인 칭호’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그에게 욕망을 불어넣는 중개자는 돈키호테가 된다. 아마디스와 돈키호테, 산초와 돈키호테는 외면적 간접화 현상을 보여준다. 르네 지라르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1) 르네 지라르는 『낭만적 거짓과 소설적 진실』에서 소설 속 주인공들의 욕망분석을 통해 인간의 욕망이 모방에서 출발한다는 것을 밝혔다. 르네 지라르는 욕망의 자율성이라는 거짓, 자율적인 주체성과 자연발생적인 욕망이라는 환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과 그들이 만들어낸 스토리를 ‘낭만적 거짓’이라고 부르며, 반대로 몇몇 위대한 작가들이 자율적인 욕망의 환상을 폭로하고, 욕망관계의 진짜 모습, 모델과 추종자들의 진짜 모습을 폭로한 것은 ‘소설적 진실’이라고 부른다(René Girard, 1961: 31; 김모세·서종석, 2016: 18 에서 재인용)

중개자와 주체가 각각 그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 가능성이라는 두 구형에서 둘 사이의 거리가 서로 접촉하지 않을 만큼 충분히 떨어져 있을 경우 우리는 그것을 외면적 간접화라고 부른다. …(중략)…물론 중개자와 욕망하는 주체 사이의 간격은 물리적인 공간으로 측정되는 것이 아니다. 지리적인 거리가 떨어져 있다는 것이 하나의 요인이 될 수 있다고 할지라도, 중개자와 주체 사이의 거리는 우선 정신적인 것이다 (르네 지라르, 1976: 김치수·송의경 역, 2001; 49-50).

돈키호테의 욕망의 구조를 도식화 하면 다음 [그림 II-2]와 같다.



[그림 II-2] 돈키호테의 욕망의 삼각형

출처 : 르네 지라르 (1976), 김치수·송의경 역 (2001; 24-25)

두 번째로는 내면적 간접화이다. 이는 욕망의 주체와 중개자 사이가 서로 어느 정도 깊이 침범할 만큼 가깝다. 일반적으로 형제나 친구 혹은 이웃 등 같은 세계에 사는 사람이 중개자가 된다. 동일한 대상을 욕망하는 주체와 중개자가 가까울수록 경쟁의식을 갖게 된다. 내면적 간접화가 발생하는 경우에 주체는 중개자에 대해 경쟁의식을 느끼게 되면서 욕망에 대한 열정은 더욱 커지게 된다.

따라서 경쟁심은 간접화의 위력을 증가시키고, 중개자로 하여금 소유의 권리나 욕망을 공공연하게 주장하도록 강요함으로써 대상을 중개자에게 결합시키는 관

계를 더욱 강화시킨다(Girard, 1961; 김치수·송유경 역, 2001; 55). 지라르는 인간의 모방의 대상이 상대방의 말과 행동뿐만 아니라 욕망까지도 포함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소유모방(mimesis appropriation Aneignungs mimesis)’이라는 개념으로 특수화한다. 소유모방은 상호간의 지향하는 욕망의 대상이 동일하다는 점에서 갈등을 불러일으키게 된다(박진희, 2004).

또한 내면적 간접화에서 특징은 욕망의 주체가 매개자에게 무관심한 척 하거나 욕망하지 않은 척 하기도 하고, 때로는 중개자를 ‘제거’하거나 ‘제압’하려고 한다. 스탕달의 소설 『적과 흑』에서 이런 상황을 묘사한 부분이 있다. 주인공 쥘리앙 소렐의 아버지 소렐 영감은 가정교사로서의 쥘리앙의 몸값을 높이고자 한다. 쥘리앙을 채용하려는 레날시장과 지역사회에서 그의 라이벌인 발르노씨 사이에서 “발르노 씨도 쥘리앙을 가정교사로 들이려고 할지도 모른다”고 하면서 레날시장의 경쟁심을 불러일으킨다.

결국 레날 시장(욕망의 주체)은 발르노씨(가상적인 욕망의 중개자)와의 관계에서 쥘리앙(욕망의 대상)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더 많은 돈을 들이게 된다(김성민, 2015). 『적과 흑』의 발르노씨처럼 중개자가 방해물이 되기도 하는 데 이로 인해 어느 순간부터는 욕망의 주체의 관심사가 ‘무엇을 욕망 하는가’에서 ‘중개자를 어떻게 제압할 것인가’로 바뀌는 ‘목적전도현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2. 한국의 교육열

교육열을 바라보는 관점은 다양하다. 그 중에서도 남미자 외(2019)는 <스카이 케슬>은 현상으로 나타나는 교육열이 아니라 욕망으로 나타나는 교육열을 다룬다고 하였다. 본 연구와 가장 방향이 비슷한 이 연구에서 언급한 내용을 참고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 맞게 수정 보완하여 욕망으로 나타나는 교육열과 현상으로 나타나는 교육열로 구분하여 선행연구를 찾아 분석하였다.

욕망으로 나타나는 교육열과 현상으로 나타나는 교육열을 나눈 기준은 다음과 같다. 욕망의 발생에 초점을 맞추어 정신분석학자들의 이론을 통해 욕망의 발생

구조를 밝혀내려한 연구는 욕망으로 나타나는 교육열로 분류했다. 그리고 교육열이 사회현상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에 초점을 맞춘 연구는 현상으로 나타나는 교육열로 분류했다. 본문의 논의를 확장하기 위해 두 가지 교육열을 형태를 모두 살펴보고자 한다.

1) 욕망으로 나타나는 교육열

강창동(2004)은 한국의 교육문화가 가진 특성을 사회적 신분욕망과의 관계를 통해 밝혔다. 여기서는 교육열을 “교육에 대한 욕망이 사회적으로 발현되는 것(강창동, 2004: 145)”으로 보았으며 교육을 사회적 위계화 산물인 기호로 작동하는 구조를 설명하면서 “교육에 대한 욕망은 곧 기호에 대한 사회적 욕망(강창동, 2004: 151)”이며, “교육욕망은 신분과 위세를 획득하려는 기호 욕망(강창동, 2004: 151)”이라고 하였다.

교육문화는 이러한 교육의 욕망이 집단적으로 나타난 것으로, 정신적 인식의 틀이라고 하였다(강창동, 2004). 역사 속에서 교육 욕망은 숭문주의(崇文主意), 입신양명주의, 문벌주의(門閥主義), 가족주의적 교육문화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전통적 교육문화의 사회적 상징체로 과거제를 꼽았다(강창동, 2004).

강창동(2004)은 조선시대 과거제로부터 이어져 내려온 신분에 대한 사람들의 욕망은 현대사회에서 학력주의로 나타나고 있으며, 과도한 학력에 대한 경쟁이 여러 가지 교육 문제를 낳고 있음을 지적하기도 하였다.

이후 강창동(2008)은 과도한 교육열을 정신분석학적 관점으로 다시 접근하여 “한국의 편집증적 교육열”로 바라보며 논의를 심화하는 연구를 발표하기도 하였다. 이 연구에서도 교육열을 욕망과 연결하여 분석하였는데, 욕망으로써의 교육열이 어떻게 구조화되고 있는지 보드리야르, 라캉 등 정신분석학자의 이론을 통해 설명했다.

여기서 편집증적 교육열이란 교육열에 대해 과도하게 집착하고 있는 현상을 정신분석학적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한 것이다. 이러한 편집증적 교육열과 신분욕망 사이의 관계, 사회사적 표현을 통한 여러 부작용들의 발생과정을 구조화하여 설명하고 있다.

특히 사회사적으로 나타나는 교육열의 특성을 기준으로 지위지향적 교육열, 가

족주의적 교육열, 상징주의적 교육열, 결과주의적 교육열로 구분하여 사회적 신분욕망과 교육이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분석하였다(강창동, 2008). 각각의 개념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지위지향적 교육열의 특징은 역사적으로 통일신라시대부터 이어져 내려온 과거제를 통해 알 수 있는데, 교육은 출세를 위한 도구일 뿐이다. 신분 욕망의 성취논리가 인격적 가치를 고양하기 위한 교육이기 보다는 신분출세를 위한 도구적 교육열로 사회사적 흐름으로 작용하고 있다(강창동, 2008)는 것이다.

가족주의적 교육열의 특징은 수신(修身)의 도(道)를 깨달아 가문의 명예를 자연스럽게 알리는 것이 아니라, 교육을 통한 세속적 욕망과 연결된 것으로써 가문의 지위를 높이기 위한 신분 욕망에서 비롯된 것(강창동, 2008)이라고 볼 수 있다.

상징주의적 교육열에서 상징주의적이란 자신의 지위와 힘을 나타내기 위한 상징적 행위를 의미한다. 즉, 교육은 자신의 신분적 위세를 위한 욕망을 실현하기 위한 도구였으며, 교육적 욕망 역시 상징욕망 속에서 신분적 위세욕망을 실현하기 위해 나타난 욕망인 것이다(강창동, 2008).

과거제가 신분상승의 도구로만 여겨지면서 각종 부정행위가 만연하기도 하였는데 그만큼 과거제를 통한 입신양명에 대한 집착이 사회 전반적으로 강하게 나타났다. 유교가 가진 본질적 의미를 탐구하기 보다는 과거 합격을 위한 수단으로 변질되었고, 결과만 좋으면 방법은 개의치 않는 결과주의적 교육열의 형태를 나타내었다(강창동, 2008).

목영해(2015)도 정신분석학자인 라캉의 이론을 통해 교육열을 분석하였다. 그는 교육열을 한국사회의 학부모들이 교육에 관련하여 자식을 향해 갖는 욕망이자, 학생이 자신의 학업에 대해 갖는 욕망이라고 하였다(목영해, 2015).

가장 최근 <스카이캐슬>을 분석한 논문인 「교육열, 능력주의 그리고 교육 공정성 담론의 재고(再考): 드라마 <스카이캐슬>의 담론 분석을 중심으로」(남미자 외, 2019)에서도 교육열을 교육에 대해 욕망으로 나타나는 교육열로 정의하며 이를 사회적이고 역사적 맥락 속에서 살펴보고 있다.

남미자 외(2019)에서는 교육열에 대해 ‘교육에 대한 집착의 정도’ 라고 하였다. 또한 <스카이캐슬> 속에서 나타나는 교육열의 양상을 크게 ‘자기 욕망을 실현하

기 위한 교육열’, ‘공고한 로열패밀리 형성을 위한 교육열’, ‘캐슬로 표상된 욕망을 비추는 거울로서의 교육열’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마지막으로 박지원·김희용(2020)은 정동(情動)으로서 교육열을 바라보았는데, 여기서 정동이란 어떠한 마주침 안에서 발생하지만, 이성이나 의식으로는 포착하기 어려운 비물질적 힘들의 총체를 지칭하는 개념이다. 신자유주의가 교육 속으로 들어오면서 생겨난 과도한 불안감이 학부모들에게 교육적 욕망을 불러 일으킨다. 이러한 신자유주의 시대의 불안은 모든 욕망이 교환가치로 환원된 자본주의적 조건(남미자 외, 2019)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신자유주의 사회에서 주체는 소비를 통해 자신을 나타내기 때문에 결국 정동으로서의 교육열도 교육이 욕망으로부터 나오고 있다고 설명한다.

즉, 교육열은 일부 개인의 도덕적 무감각이나 탐욕, 혹은 시스템의 문제로 환원될 수 있는 고정적인 관념이 아니라, 교육제도, 경제, 사회적 관계, 인정욕구 등 복합적인 힘들의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갈등하고 변형되는 동적인 현상이다(박지원·김희용, 2020).

이러한 모든 내용을 종합하여 각각의 연구에서 교육열의 개념, 연구목적,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 [표 II-1]과 같다.

[표 II-1] 욕망으로 나타나는 교육열 관련 선행연구 분석

구분	연구자	교육열의 개념	연구목적	특징
욕망으로 나타나는 교육열	강창동 (2004)	“교육에 대한 욕망은 곧 기호에 대한 사회적 욕망”으로서 “교육욕망은 신분과 위세를 획득하려는 기호 욕망”	한국의 교육문화가 가진 특성을 사회적 신분욕망과의 관계를 통해 밝힘.	
	강창동 (2008)	교육을 받고자하는 욕망 편집증적 교육열이란 교육열에 대해 과도하게 집착하고 있는 현상	사회적 신분욕망과 교육이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분석.	-지위향적교육열 -가족주의적교육열 -상징주의적교육열 -결과주의적교육열
	목영혜 (2015)	한국사회의 학부모들이 교육에 관련하여 자식을 향해 갖는 욕망이자, 학생이 자신의 학업에 대해 갖는 욕망	인간이 갖는 ‘욕망’에 대한 인문 사회학적 분석에 기반을 둔 ‘교육열’에 대한 분석이 필요.	
	남미자 배정현 오수경 (2019)	교육에 대한 집착의 정도	드라마 ‘<스카이캐슬>’에서 재현된 교육열의 양상과 특징을 분석하고, 드라마가 보여주는 서사가 어떤 지배 담론을 강화하고 재생산하는가를 파악하고자 함. 더불어 한국사회의 교육 관련 담론들을 추동하게 하는 원리를 이해하고, 지배 이데올로기에 대한 저항과 대안에 대한 시사점을 찾고자 함.	- 자기 욕망을 실현하기 위한 교육열 -공고한 로열패밀리 형성을 위한 교육열 -캐슬로 표상된 욕망을 비추는 거울로서의 교육열
	박지원 김희용 (2020)	일부개인의 도덕적 무감각이나 탐욕, 혹은 시스템의 문제로 환원될 수 있는 고정적인 관념이 아니라, 교육제도 경제, 사회적 관계, 인정욕구 등 복합적인 힘들의 관계속에서 끊임없이 갈등하고 변형되는 동적인 현상	교육열을 사회적 관계 속에서 생성되고 전염되는 정동으로 이해함으로써, 교육을 둘러싼 욕망이 과도한 수준으로 치닫는 심리사회적 원인을 탐색.	정동이란 어떠한 마주침 안에서 발생하지만, 이성이나 의식으로는 포착하기 어려운 비물질적 힘들의 총체를 지칭하는 개념

2) 현상으로 나타나는 교육열

교육열을 한국사회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로 논의를 확장하기 위

해 현상으로 나타나는 교육열을 분석한 연구를 살펴보았다.

이종각(2013)은 교육열은 학부모 행동의 원천 에너지로써 작용할 뿐만 아니라, 학부모의 행동에 어떤 일관성을 갖게 하는 힘으로 정의했다. 또한 교육열을 교육 정책적 의미에서 분석하고 교육열을 어떻게 정책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가에 대해 연구를 하였다. 그래서 교육정책을 결정하는 역할로 교육열을 바라보며,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점으로 교육열을 해석하였다. 교육열에 대해 그동안의 부정적인 인식을 견지하며, 부모들이 보여주는 자녀교육 지원의 이면에 자리한 동기 내지는 에너지로써 교육제도 및 정책에 교육열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안우환·김경식(2005)은 교육열을 부모의 자녀에 관한 관심과 기대라는 무형의 자본과 지원 및 조력이라는 유형의 자본이 결합 되어 긍정적인 내재적 가치의 구현과 부정적인 외재적 가치의 추구라는 형태로 표출되는 내면의 심리적인 행위라고 정의하였다. 조직의 구성원들 사이의 상호작용으로, 비공개적인 네트워크를 통해 형성되는 유대 관계를 사회적 자본이라고 부르는데, 이를 학부모-자녀간의 신뢰, 사회 망, 기대 및 규범과 교육열의 관계를 통해 교육열로 생긴 다양한 문제들의 해법을 찾았다.

즉, 어머니와 자녀간의 관계 신뢰와 교육의 수요자로서 교육정책에 대한 신뢰를 통해 교육문제의 해법을 찾을 수 있다. 따라서 도구적 교육열이 아닌 자녀의 전인적 성장을 위한 교육과 이타적 교육열로의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또한 부모들의 지나친 기대감으로 파생되는 교육투자 비용을 낮춰 학부모와 학생들의 고통을 줄여줄 필요가 있으며, 평생교육의 차원에서 학교 교육을 확장해 부모 자녀간의 신뢰를 회복하고 계층 간의 위화감을 줄이는 데 노력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 외에도 이종각·김기수(2003)는 교육열을 자녀의 교육을 지원하려는 부모의 동기체제라고 하였다. 교육열은 자녀가 사회적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도록 더 나은 학력을 갖게 하려는 행위로 나타난다고 정의하였으며, 교육열에 대한 이전까지 연구를 정리하여 교육열에 대한 개념을 명확하게 정리하고자 했다.

이종각·김기수(2003)는 교육열에 대한 논의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으로 일원화된 개념이 없고 그 정체도 불확실하다는 문제를 제기하며, 한국의 교육현실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또한 교육학의 진보를 위해, 교

육열에 대한 개념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교육열을 분석한 연구를 크게 여섯 가지로 구분하여 교육병폐의 원인으로 교육열을 지목한 연구, 교육열의 형성 배경이나 원인을 분석한 연구, 교육열 현상의 실체를 파악하려는 연구, 교육열 현상을 설명하는 이론을 개발하려는 연구, 사회현상이나 교육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교육열 개념을 활용한 연구, 교육열의 개념을 정교화하려는 연구로 분석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교육열의 개념, 연구목적, 특징으로 나누어 표로 정리하면 다음 [표 II-2]와 같다.

[표 II-2] 현상으로 나타나는 교육열 관련 선행연구 분석

구분	연구자	교육열의 개념	연구목적	특징
현상으로 나타나는 교육열	이종각 (2013)	학부모 행동의 원천 에너지로서 작용할 뿐만 아니라, 학부모의 행동에 어떤 일관성을 갖게 하는 힘	교육열의 정책적 의미와 방향 분석	교육열을 긍정적으로 바라봄
	안우환 김경식 (2005)	부모의 자녀에 대한 관심과 기대라는 무형의 자본과 지원 및 조력이라는 유형의 자본이 결합되어 긍정적인 내재적 가치의 구현과 부정적인 외재적 가치의 추구라는 형태로 표출되는 내면의 심리적인 행위	가족 내 사회적 자본을 통해 학부모의 교육열을 조망하고자 함	사회적 자본의 유형 -학부모-자녀간 신뢰 -사회 망 -기대 및 규범
	이종각 김기수 (2003)	자녀의 교육을 지원하려는 부모의 동기체제이며, 교육열은 자녀가 사회적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도록, 더 나은 학력을 갖게 하려는 행위	교육열에 대한 개념을 정리하여 교육열이 지닌 특성을 비교	

3. 르네 지라르의 ‘욕망의 삼각형’ 이론과 교육열의 관계성

이상의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교육열의 발생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서 르네 지라르의 욕망의 삼각형 구조를 활용할 수 있다. 욕망의 삼각형 이론을 교육에 적용하면 교육적 욕망도 자연발생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욕망을 모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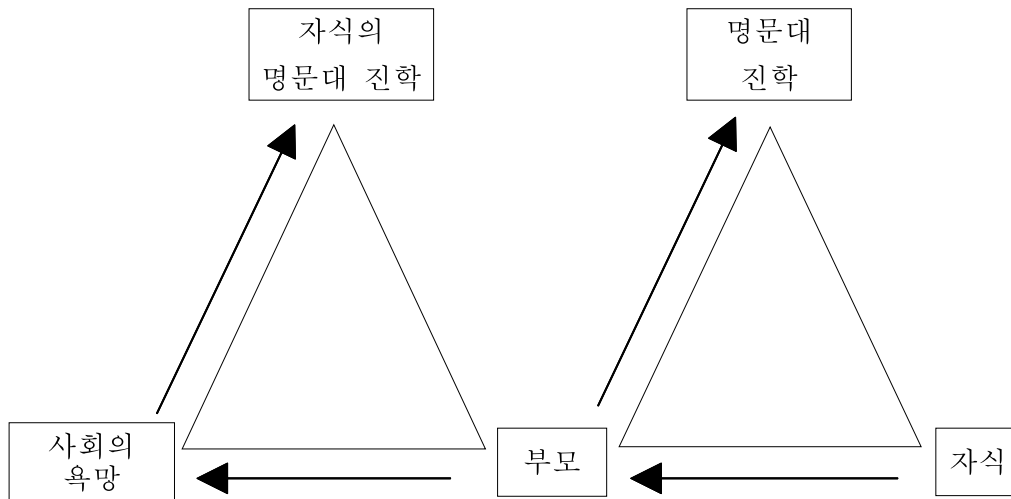
핵심은 누가 어떤 욕망이 간접화되어 욕망하는 것인가이다. 강창동(2004)은 사회적인 신분욕망을 설명하는 첫 단계에서 인간의 욕망 발생을 설명하고 있는데, 인간의 욕망이 사회적으로 코드화된 욕망으로 사회 속에서 의미를 부여받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인간은 사회적 기호를 소비하고 의미를 발산하는 존재이며, 여기서 기호는 신분과 위세를 나타내는 차이 표시의 도구이자 구별짓기의 사회적 준거이다(강창동, 2004).

과거에는 과거제도가, 현대사회에서는 학력이 신분적 위계를 정당화해주는 하나의 기호이며 이를 획득하게 해주는 방법이 바로 교육의 역할인 것이다(강창동 2004). 종합하면, 인간은 사회적 욕망에 의해 욕망이 암시되어 사회적 기호를 획득하고자 한다. 여기서 사회적 기호는 부, 권력, 지위, 자식의 명문대학 진학 등이며, 사람들은 이를 획득하여 남들과 ‘구별짓기’ 하려는 욕망이 있다. 자식의 명문대학 진학 역시 현대사회에서 구별짓기로 작용하기에 이를 이루고자 하는 사회적인 욕망이 그대로 부모들에게 암시되어 간접화 되고, 부모들은 그 욕망을 따라 간다.

자식의 명문대학 진학을 위해선 교육에 대한 욕구가 커질 수밖에 없는데, 교육에 대한 욕구 즉 교육열은 교육 소비자인 학생으로부터 발생하기 보다는 부모로부터 나온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교육열은 자녀의 교육을 지원하려는 부모의 동기체제이며, 교육열은 자녀가 사회적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도록, 더 나은 학력을 갖게 하려는 행위(이종각·김기수, 2003)이기 때문이다.

가족주의가 강한 우리나라 사회(남미자 외, 2019)의 특성상 이런 삼각형의 구조는 여러 관계가 상호작용하며 복잡하게 나타난다. 부모를 주체로 한 삼각형은 사회적 욕망이 암시되어 자식의 명문대 진학을 욕망한다. 그리고 자식은 그러한

부모의 욕망이 암시되어 명문대 진학을 욕망하는 형태로 나타난다. 이를 삼각형으로 도식화하면 다음 [그림 II-3]과 같다.



[그림 II-3] 한국사회의 교육적 욕망의 구조

결국, 교육열은 외적 중개자인 사회에 의해 간접화된 가짜 욕망일 뿐 부모에게 자연발생적으로 생겨난 욕망이 아니며, 많은 아이 역시 스스로 자신의 꿈을 고민하고 결정하기보단 사회적 욕망 즉, 부모가 바라는 삶을 자신의 욕망이라 착각하게 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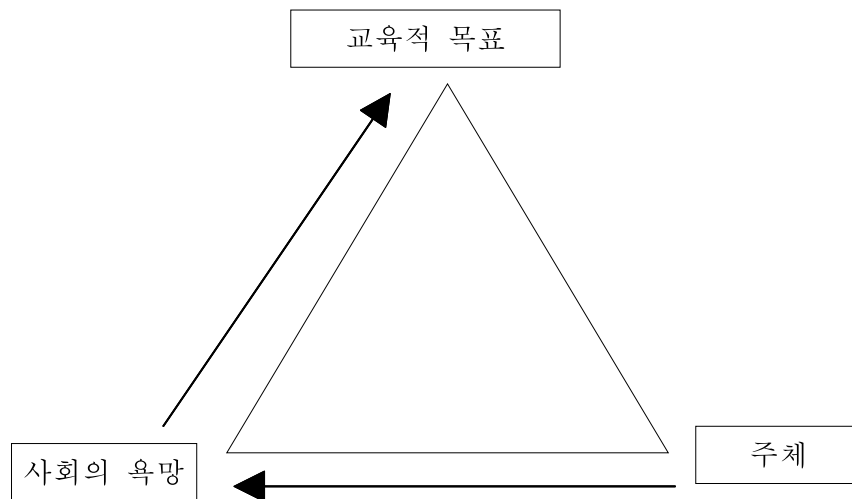
그런데 이러한 교육열 이면에는 부모들의 다른 목표가 내재되기도 한다. 가족주의가 강한 한국사회에서 자녀의 성공은 가족의 사회적 지위재생산을 위한 가장 가능성이 많은 기제로 인식(이민경, 2007)된다. 따라서 가족의 명예를 유지하고자 하는 목적을 지니기도 하고, 부모가 가진 학력에 대한 콤플렉스를 극복하고자 하는 목적을 지니기도 한다(이민경, 2007).

시장경제체제에서는 많은 사람이 진정한 가치인 사용가치가 아닌 교환가치를 추구함으로써 가짜 가치의 지배를 받는다. 어떤 사물의 가치가 올라가기 위해선 수많은 사람이 그 사물을 원하면 된다. 우리사회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욕망의 중심에는 신분, 지위, 명예, 경제력 등이 자리하고 있다. 모두가 함

께 누릴 수 없는 가치이기에 누군가에게 주어진 특권이 되었고, 이를 차지하기 위해 수많은 사람이 경쟁하고 있다. 여기서 교육은 그 자체로 타자와의 구별짓기를 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미래에 더 나은 선택지에 접근하거나 그 가치를 선별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메타적인 기능을 한다(박지원·김회용, 2020). 결국 교육에 대한 욕망은 그 자체로 발생하는 자연발생적인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인간이 사회의 욕망을 모방한 욕망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교육에 대한 목적은 순수하게 교육 그 자체가 아닌 개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도구로 기능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Ⅲ. 연구방법

본 연구는 2018년 11월 23일부터 2019년 2월 1일까지 총 20부작으로 JTBC에 방영된 <스카이캐슬>을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드라마 방영본 대본집을 통해 각 대사들을 면밀히 분석하고자 하였다. 분석틀은 르네 지라르의 삼각형 구도를 통해 교육적 욕망의 구조를 [그림 Ⅲ-1]과 같이 도출하였다. [그림 Ⅲ-1]의 삼각형을 기준으로 등장인물별 교육적 욕망이 무엇인가를 분석하였고,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연구문제 2번인 교육적 욕망이 어떻게 발생하고 있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교육열이 교육적 목표를 기준으로 나타나는 형태에 따라 유형화하여 특징을 도출하였고, 이를 확장하여 한국사회에서 나타나는 교육열을 분석하였다. 분석방법으로는 등장인물별 교육적 욕망을 분석하는 인물욕망 분석, 등장인물의 욕망이 나타나는 형태에 따라 교육열 현상분석으로 나누어 진행하였다. 이러한 분석방법은 박진희(2004) 연구의 연구방법을 참고하였으며, 본 연구의 내용에 알맞도록 수정하였다.



[그림 Ⅲ-1] 한국의 교육열 구조

1. 인물욕망 분석

한국에서 교육열이 어떻게 발생하는가를 밝히기 위해 드라마 <스카이캐슬>의 주요 등장인물을 분석의 대상으로 삼았다. 특히 드라마의 주인공으로 꼽히는 다섯 명의 여성을 대표로 하여 각각이 속한 가족으로 나누어 욕망을 분석하였다. 한서진·강준상 부부, 이명주·박수창 부부, 노승혜·차민혁 부부, 진진희·우양우 부부, 이수임·황치영 부부의 순으로 각각의 교육적 욕망의 발생 구조를 분석하였으며 각각의 인물 혹은 부부에 따라 교육적 욕망이 발생하는 구조를 유형화하였다. 교육열 발생 구조에 따라 삼각형으로 설명이 가능한 욕망유형, 삼각형을 깨고 나오는 욕망유형, 삼각형 구도를 벗어난 욕망유형으로 나누어 분석하고자 한다. 분석틀은 [그림Ⅲ-1]에 제시된 틀을 활용하였다. 그리고 인물 순서는 등장인물이 사건을 이끌어 가는 비중과 중요도에 따라 나열했다.

2. 교육열 현상 분석

발생한 교육욕망이 어떤 식으로 교육열로써 드러나고 있는지에 따라 ‘교육의 도구화 유형’, ‘교육 목적 부재 유형’, ‘교육 본질 추구 유형’으로 다시 분류하여 정의하였다. 그리고 결론에서 드라마가 꿈꾸는 이상적인 교육의 목적이 무엇인가 살펴보았다. 여기서 대부분의 등장인물이 삼각형 구도로 교육욕망의 발생 구조를 설명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한국사회에서 발생하는 교육열의 발생 구조는 ‘모방에 의한 교육열’로 설명할 수 있다. 이러한 삼각형 구도 속에서는 교육을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활용하는 형태로 나타나며, 이러한 욕망이 교육에 대한 욕망으로 나타나 교육적 욕망을 강하게 한다. 교육의 도구화 유형에서는 등장인물의 목적에 따라 좀 더 세분화하여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가문의 명예를 유지하기 위한 교육열’, ‘신분상승을 위한 교육열’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IV. <스카이캐슬>에 드러난 교육욕망의 구조

1. <스카이캐슬>의 줄거리

드라마 <스카이캐슬>의 내용을 사건의 흐름을 기준으로 나누어 소개하고자 한다.

1) 주요 등장인물 등장과 이명주의 죽음

주남대학교 정교수만이 살 수 있는 사옥인 스카이 캐슬에는 주요 등장인물인 한서진·강준상 가족, 이명주·박수창 가족, 노승혜·차민혁 가족, 진진희·우양우 가족이 산다. 네 가족 모두 남편이 주남대 정교수로 재직하고 있으며, 자녀들은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다. 대입이라는 중요한 목적을 공유하고, 아이들의 교육에 대한 욕망을 강하게 드러내며 교육적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특히나 이명주·박수창 아들이 서울의대에 합격하면서 한서진, 노승혜, 진진희는 대입성공의 노하우를 알기 위해 영재의 학생부종합전형 포트폴리오를 얻고 싶어 한다. 그러나 포트폴리오는 얻지 못하고 대신 이명주의 소개로 은행 VIP만 초대하는 입시 설명회의 존재를 알게 된다. 그리고 그곳에서 한서진은 입시 코디네이터인 김주영을 알게 된다. 그러던 중 아들의 의대진학으로 3대째 의사 가문을 이룬 이명주가 자살을 하게 되고 이 사건으로 캐슬은 충격에 빠진다.

한편 이명주의 죽음으로 충격을 받은 이명주 가족은 스카이 캐슬을 떠나고 그 집으로 이수임 가족이 새로 이사를 온다. 다른 부모들과 달리 교육열이 높지 않고 아이들의 행복이 우선이라 얘기하는 이수임은 교육열이 강한 캐슬 주민들에게 미움을 받는다. 이수임은 한서진이 과거 고등학교 동창인 광미향이었으며, 신분을 세탁하여 한서진으로 살고 있음을 알게 된다.

2) 등장인물의 교육적 욕망이 표출

과거 시장에서 선지를 팔던 부모님을 두었던 곽미향은 한서진으로 신분을 바꿔 산다. 그런 한서진을 시어머니인 윤여사는 며느리로 인정하지 않는다. 한서진은 예서를 의대에 진학시켜 윤여사의 소원인 3대째 의사 가문을 만들어서 어떻게든 시어머니로부터 존재를 인정받고자 한다. 그러나 한서진은 이명주의 아들인 영재의 태블릿 PC를 통해 이명주의 죽음과 이명주 가족의 불행이 은행 입시 설명회에서 알게 된 입시코디네이터인 김주영 때문이라는 것을 눈치챈다. 이 사실을 알고 한서진은 딸 예서의 입시코디를 그만하고자 하였으나, 예서가 입시에 대해 불안해하자 다시 김주영을 채용하게 된다.

한편 동화작가인 이수임은 캐슬 내 아이들이 입시로 괴로워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진정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를 고민한다. 그러던 중 우연히 이명주·박수창 가족의 사건을 알게 되고 잘못된 교육 가치관과 부모의 욕심이 아이들을 힘들게 하고 있음을 알게 된다. 또한 이명주의 죽음이 예서의 코디인 김주영과 관련이 있음을 의심하게 되면서 사건을 파헤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캐슬 내 부모들이 가진 비뚤어진 교육열을 마주하게 된다. 이수임은 이명주의 죽음이 부모의 비뚤어진 욕망과 이를 이용한 김주영으로부터 시작된 것이라고 생각하게 된다. 계속되는 비극을 멈추기 위해 비뚤어진 교육관으로 초래되는 문제를 알리는 동화를 쓰기로 결심하게 되고, 또다시 캐슬 내 주민들을 비롯해 김주영과도 갈등을 빚게 된다.

한편 노승혜의 남편인 차민혁은 한국의 캐네티가를 염원하며 쌍둥이 아들들을 강압적으로 교육한다. 하버드 재학 중인 큰딸 세리를 늘 자랑으로 생각한다. 두 쌍둥이 아들도 의사와 법조인이 되길 바라며 권위주의적인 아버지의 모습을 보인다. 노승혜는 이런 남편의 행동들이 아이들을 힘들게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대학 입시 성공이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필요하다는 데 동의하기에 남편의 행동을 적극적으로 저지하지 못한다.

진진희는 예서가 의대진학을 성공하여 자신의 아들에게 그 노하우를 전수해주길 바라며 아들의 교육에 욕심을 부리지만, 아들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마음이 약해지곤 한다.

한서진의 딸인 예서는 같은 반 친구이자 라이벌인 혜나와 경쟁하게 된다. 그러

던 중 자신이 좋아하는 우주가 혜나를 좋아하는 것을 알게 되고 혜나에 대한 경쟁심이 극도에 달하게 된다. 이를 알게 된 혜나는 우주를 이용하여 예서를 자극하고 예서를 이기고자 한다. 혜나의 존재를 먼저 알아챈 김주영이 예서의 경쟁심을 이용하여 성적을 높이려고 한다. 그래서 한서진에게 혜나를 예서의 집에 들일 것을 제안하였고, 오랜 고민 끝에 한서진도 이를 받아들여지게 된다.

3) 등장인물의 각성과 욕망의 삼각형 구도의 변화

혜나가 집에 들어온 후 예서는 혜나를 집에 들인 엄마에 대한 배신감에 한서진을 멀리하게 되고 김주영에게 의지를 하게 된다. 그러다 혜나가 강준상의 혼외자임을 한서진과 예서가 차례대로 알게 된다.

한편 하버드대에 재학 중인 노승혜의 큰딸이 한국에 들어온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노승혜의 큰딸 세리의 하버드대 입학이 모두 거짓말이었음이 밝혀진다. 노승혜는 이 사건으로 남편의 강압적인 교육을 저지하지 못했던 자신의 모습을 반성하며 아이들의 미래와 교육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게 된다.

진진희 역시 하나뿐인 아들 수한의 입시에 고민이 많다. 그러나 수한은 공부에 흥미가 없어 힘들어한다.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아이가 이렇게 힘들어 하는데 입시를 강요하는 게 맞는지 고민하지만, 대입성공이 아들을 위해 필요한 과정이라는 것을 잘 알기에 선뜻 사교육을 놓치지 못한다.

세리의 귀국환영파티 중 혜나가 죽게 되고 혜나와 같이 있었던 아이들이 하나둘씩 의심을 받는다. 그러다 우주가 최종 용의자로 지목되어 구치소에 갇히게 되고 우주의 부모인 이수임과 황치영은 우주의 결백을 밝혀내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한다.

그제서야 죽은 혜나가 자신의 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강준상은 혜나를 살리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괴로워하고, 자신의 딸도 알아보지 못하고 성공에만 눈이 멀었던 자신의 인생에 대해 회의감을 느낀다. 그러면서 의사가 된 것도, 기조실장이 되고자 했던 것도 자신의 꿈이 아닌 어머니 운여사의 욕망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게 된다. 이런 와중에 한서진은 김주영이 학교에서 빼돌린 시험지를 예서에게 중간고사 예상문제로 주었고, 예서가 이 문제지로 공부하여 1등을 했다는 것을 알게 된다.

4) 삼각형을 깨고 나온 등장인물과 새로운 가족의 등장

예서는 우주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밝히지 못하는데 죄책감을 느끼며 힘들어한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 한서진도 괴롭다. 그러나 우주의 결백을 밝히게 되면 김주영이 학교 시험지를 빼들려 예서에게 줬다는 사실이 밝혀지게 되고, 예서의 성적이 무효가 되어 입시도 기대할 수 없게 된다. 한서진은 딸의 미래와 우주의 결백 사이에서 고민하게 된다. 그러나 각성한 강준상이 잘못된 방법으로 대입에 성공하는 것보다 올바르게 사는 것이 예서를 위한 일임을 강조하며 한서진을 설득한다. 한서진은 예서의 미래를 위해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고민하지만 결국에는 하나의 죽음에 얽힌 우주의 억울한 누명을 벗겨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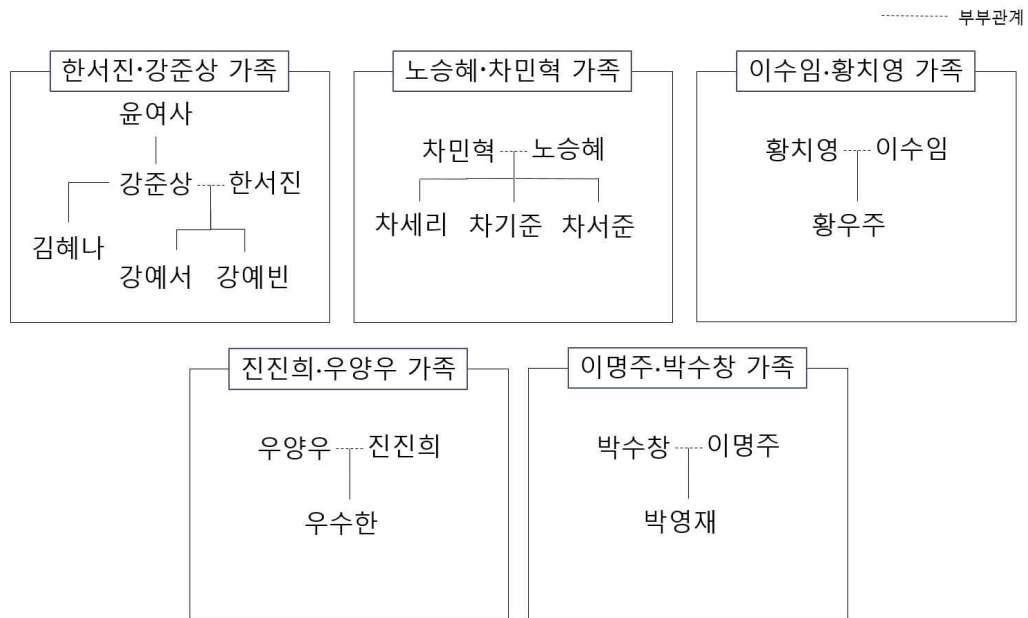
차민혁 역시 노승혜와 자식들의 가출로 자신의 고집을 꺾게 된다. 대입성공이 인생의 성공이라는 획일적인 잣대를 내려놓고 클럽 DJ라는 세리의 꿈을 응원하게 된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강압적으로 교육하지 않겠다고 표면적으로 다짐을 한다. 우주는 구치소에서 풀려나고 김주영은 살인교사로 감옥에 가게 된다. 예서의 입시비리가 터지며 예서도 학교를 떠나고 예서의 가족들도 캐슬을 떠난다. 예서는 검정고시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대입에 도전하겠다는 결심을 하고, 우주 역시 대입으로 획일화된 고등학교 교육에 환멸을 느끼며 자퇴를 하게 된다. 오히려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고민하는 시간을 먼저 갖겠다고 선언하고, 이수임·황치영 부부는 이를 응원한다.

남은 가족들은 이수임처럼 과도한 교육보다는 아이들의 행복을 응원해주고 지지해주어야 한다는 교육관으로 변화한다. 캐슬은 다시 조용해지는 듯싶지만, 예서네가 이사 간 자리에 변화되기 전 자신들과 같은 모습의 새로운 가족이 오면서 끝이 난다.

2. 인물관계도 및 등장인물 소개

<스카이캐슬>의 인물관계도를 중심으로 간단한 인물소개를 하면 다음과 같

다. 등장인물 중 본 연구를 위해 필요한 인물들을 중심으로 나열하였으며, <스카이캐슬> 드라마 대본집과 홈페이지 인물소개를 바탕으로 가족단위로 나눈 후 드라마에 등장하는 인물의 성격과 가족관계를 정리하였다.



[그림 IV-1] <스카이캐슬> 등장인물 관계도

출처 : 드라마 <스카이캐슬> 공식홈페이지 내용을 참고하여 연구자가 재구성

1) 한서진·강준상 가족

한서진은 남편 강준상, 딸 예서와 예빈이와 함께 살고 있는 전업주부이다. 시장에서 선지를 팔던 아버지 밑에서 콕미향으로 자랐지만 현재는 시드니 모기지 전문 은행 은행장인 아버지와 명문가 출신의 어머니 사이에서 1남 1녀로 태어난 외동딸로 신분을 세탁하여 살고 있다. 그런 자신을 늘 무시하는 시어머니 윤여사로부터 인정받고자 예서의 의대 진학에 집착한다. 3대째 의사 가문을 만드는 것이 자신이 인정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전형적인 헬리콥터맘²⁾

²⁾ 헬리콥터맘 : 평생 자녀 주위를 맴돌며 자녀의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발벗고 나서며 자녀를 과잉 보호하는 엄마들을 지칭한다. 헬리콥터맘이라는 개념은 우리나라 교육에 있어 엄마들의 뜨거운 교육열의 단면을 가장 잘 나타내어주는 치맛바람에서 파생된 것으로, 헬리콥터맘은 착륙 전의 헬리콥터가 뿜어내는 바람이 거세듯 거센 치맛바람을 일으키며 자녀 주위에서 맴도는 어머니를

이다.

한편 시어머니 윤여사는 3대째 의사가문에 집착하는 인물로 가문의 명예와 지위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이다. 아들인 강준상을 학력고사 수석과 서울의대 수석합격으로 진학시킨 것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고 있으며, 출신 배경을 이유로 콕미향을 며느리로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이 바라는 출신과 가문의 한서진이라는 인물로 덧씌운다.

딸 예서는 승부욕이 강하며, 엄마를 위해, 가족을 위해 스스로 의대를 진학하려는 강한 욕망을 내비친다. 우주를 좋아하기 시작하면서 헤나와 경쟁하기도 한다.

김혜나는 예서와 1, 2등을 다투는 라이벌이자 강준상의 혼외자식이다. 똑똑한 머리를 가지고 있으나 엄마의 죽음으로 혈혈단신 혼자가 된다. 눈앞에서 반칙하는 학교에 이의를 제기하며 불의를 못 참는 듯 하지만 수행평가를 대신해주고 대가를 챙길 만큼 영악한 면도 있다. 우주가 자신을 좋아하는 것을 알고 예서를 자극하기 위해 우주의 마음을 이용하기도 하고, 강준상이 아빠라는 사실을 알고서는 예빈의 입주과외를 하며 한서진을 압박하기도 하지만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게 된다.

2) 이명주·박수창 가족

이명주는 남편 박수창, 외아들 박영재와 함께 살고 있는 전업주부이다. 이명주는 빈틈없는 플랜과 조력으로 아들 영재를 서울의대에 합격시켜 3대째 의사가문을 만들어낸 여자이다. 덕분에 스카이 캐슬 주민들 사이에서는 워너비로 꼽힌다.

그러나 드라마 후반부에 영재 역시 입시 코디 김주영을 만난 사실이 드러난다. 영재는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로 우울해하던 중 가정부의 딸 가을이를 좋아하게 되고, 이를 인정하지 않았던 부모에게 복수를 다짐하며 의대 합격 후 가출을 감

빛댄 용어다. 어릴 때부터 학습 매니저가 된 헬리콥터맘은 대학교에 들어간 장성한 자녀들의 일거수일투족까지도 참견하는 경우가 많다. 자녀의 숙제를 대신해 주거나 학교 측에 사사건건 간섭하기도 하며, 자녀가 사회인이 되어 취직을 하게 되면 자녀의 경력관리에 나서고 부서 배치를 조정하려고도 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헬리콥터맘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행했다. 이에 충격을 받은 이명주는 자살을 한다.

3) 노승혜·차민혁 가족

노승혜는 남편 차민혁, 쌍둥이 아들 서준, 기준과 함께 살고있는 전업주부이며, 하버드대를 다니는 딸 세리가 있다. 아버지는 육군참모총장에 여당 국회의원 출신이고, 노승혜 자신은 박사까지 수료한 엘리트 집안출신이다. 자식의 교육에 대한 어머니의 역할을 내면화하고 이를 실천하고자 자신의 꿈을 포기한다. 그러나 딸 세리가 가짜 하버드생으로 밝혀지고 나서 잘못된 교육관에 빠져있는 남편으로부터 자식들을 지키지 못한 점을 후회하며 스스로 성찰하게 된다.

남편인 차민혁은 세탁소집에서 태어나 출신에 대한 콤플렉스를 가지고 있으며, 스카이 캐슬 내 다른 가족들처럼 자신도 대를 이어 ‘한국의 케네디가’를 만들고 싶은 열망에 가득 차 있다. 그래서 스스로 자식의 교육에 관여하며 자식들에게 계층 피라미드를 끊임없이 주입하고자 하지만 자식들은 오히려 그러한 아빠를 무시한다.

4) 진진희·우양우 가족

진진희는 남편 우양우, 외아들 우수한과 함께 살고 있는 전업주부이다. 강남 건물주의 딸로 부유하게 자라왔고, 타인에 공감하는 능력이 뛰어나다. 교육에 대한 명확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래서 한서진과 이명주 등 캐슬 내 부모들을 보며 자신도 아들을 의대에 진학시키고 싶어 아들을 닦달하기는 하지만, 아들이 힘들어할 때마다 마음이 흔들린다.

5) 이수임·황치영 가족

이수임은 남편 황치영, 아들 황우주와 함께 살고 있는 동화작가이다. 아이들의 행복을 걱정하고, 배려심이 많고 불의를 못 참는 성격이다. 캐슬 내 뼈뿔어진 부모의 교육열로 아이들이 힘들어하는 것을 보며 동화를 쓰고자 하다가 뜻밖에 영재의 가출과 혜나의 죽음이 김주영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된다. 교생 시절 성적으로 힘들어하는 한 아이를 지켜주지 못했다는 죄책감을 지니고 있으며, 김주영으로부터 시작된 여러 가족의 비극을 눈감을 수 없어 뼈뿔어진 교육열

의 모습을 드러내기 위해 고군분투하게 된다.

6) 김주영

대치동 엄마들도 모르는 극소수의 아는 사람들만 아는 최고의 입시 코디네이터이다. 서울대 입학 사정관 출신에 성공률 백프로, 베테랑 전문가들로 꾸려진 전투력과 수십억을 호가하는 몸값으로 유명하지만 원한다고 그녀를 고용할 수 없다. 서류와 면접을 통해 그녀에게 간택되어야만 자녀 관리를 맡길 수 있다. 학생 대비 내신 관리는 물론 자동봉진(자율 동아리, 봉사, 진로활동)에 교우관계, 심리, 건강, 수면스타일까지 하나부터 열까지 학생의 모든 것을 분석하고 관리하면서 업무외의 이야기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는 무겁고 신중한 스타일이다. 학생을 원하는 대학에 진학시키기 위해 합법과 편법은 물론, 온갖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드라마 <스카이캐슬> 공식 홈페이지 참조). 하지만 자식의 인생을 제 손으로 망쳤다는 죄책감을 위로받고자 부모들의 욕망을 이용한다.

3. 주요 등장인물별 욕망구조 분석

교육에 대한 욕망이 삼각형 구도로 설명이 되는 이유는 욕망의 발생이 자연발생적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론적 배경에서 도출 한 삼각형에서 볼 수 있듯 등장인물은 ‘드라마 속 사회’라는 중개자에 의해 암시된 욕망이 간접화되어 나타난다. 부모들의 욕망은 1차적으로 남들과 다른 ‘구별 짓기’이다. 이를 위해 공통적으로 부모는 자식의 성공을 위한 명문대 진학을 바라고 있지만 이는 결국 각자가 품고 있는 다른 목표를 위한 수단일 뿐이다. 이러한 욕망의 구도가 대부분이긴 하지만 드라마 속 교육 욕망의 유형은 이 외에도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교육에 대한 욕망의 양상을 좀 더 세밀하게 분석하기 위해 각 등장인물 별로 욕망을 분석하였다.

이때 분석의 근거로 드라마 속 대사 혹은 지문을 직접 인용하는 방식을 사용하였다. 인물 분류는 가족주의 성격이 강한 한국의 특성상 가족단위로 분류하였

다. 주로 가족들의 욕망의 구조가 무엇인가를 분석했지만 그 속에서 개인 욕망이 두드러지게 보이는 경우에는 개인별 욕망이 무엇인가도 살펴보았다. 분석내용은 각각의 인물을 이름, 계층, 가족관계, 교육의 목표, 교육열의 강도를 기준으로 정리하였다.

계층은 홈페이지 속 <스카이크슬> 드라마 소개 속에서 등장인물별 소개에 나타난 내용을 기준으로 정리하였으며, 교육의 목표는 드라마 속 대사와 지문을 통해 등장인물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도출한 후 정리하였다. 대부분의 등장인물이 삼각형 구도를 나타내는 욕망의 형태이기에 교육열에 대한 정의를 ‘교육을 도구로 활용하고자 하는 강도’로 하였으며, 화살표 개수에 따라 강도를 나타내었다.

등장인물 욕망 분석의 목적은 각각의 인물의 욕망의 발생구조를 파악하기 위함이다. 대부분의 등장인물의 욕망의 발생구조를 삼각형에 대입할 수 있었으나, 몇몇의 등장인물은 욕망의 발생구조를 삼각형화하는 데 무리가 있었다. 이러한 한계 때문에 대사나 각 드라마의 장면에서 명확하게 드러나는 경우에는 삼각형 구도를 가져와 시각화하였고, 그 외 인물에 대해선 각각의 인물이 원하는 목표가 무엇인지를 파악할 수 있도록 그림을 통해 시각화하였다.

1) 개인욕망 실현과 가족 명예유지를 위한 욕망유형 : 한서진·강준상 가족

한서진은 시어머니인 윤여사로부터 3대째 의사가문을 만들라는 미션을 받았다. 아들을 낳지 못한 한서진의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예서를 의사로 만들어 3대째 의사가문을 만들어야 한다는 강박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자신이 강준상의 가족으로 편입되고 며느리로서 존재를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이다. 과거 시장에서 선지를 팔던 부모를 둔 광미향이 아닌 시드니 모기지뱅크의 은행장인 아버지를 둔 한서진으로 신분 세탁을 하며 살 정도로 한서진은 신분에 대한 욕망이 강하다.

자신의 존재가치를 증명하려는 욕망을 실현하기 위해 교육을 도구로 활용하는 구조를 보이며, 교육에 대한 집착이 매우 강하다. 이런 교육에 대한 집착과 윤여사가 한서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다음의 드라마 속 대사들로 알 수 있다.

“삼대째 의사 가문 만드는 게 필생의 소원이신 당신 어머니!! 가뜩이나 아들 못 낳았다고 대놓고 무시하시는 데, 예서, 의대까지 떨어져봐요! 내가 숨이나 쉴 수 있을 거 같아요?”

-한서진의 대사, 1화

“내가 널 며느리로 인정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알아 들겠니?”

- 윤여사의 대사, 1화

“의대 가야지, 니 아빠 나온 서울의대 당연히 가야지!!!”

-윤여사의 대사, 19화

“도둑질을 한 게 아니라 스트레슬 푼거야!”

“뭐? 뭐라구?”

“내 딸한텐 그게 게임이고 놀이였을 뿐이라고!!”

-이수임 한서진의 대화, 5화

윤여사, 강준상의 경우는 가문의 명예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대대손손 의사집안을 욕망하고 있다. 궁극적으로 자신들의 공고한 로열패밀리를 만들고자 한다. 강준상과 윤여사는 표현하는 방식이 다를 뿐 자식에 대한 교육욕구는 매우 강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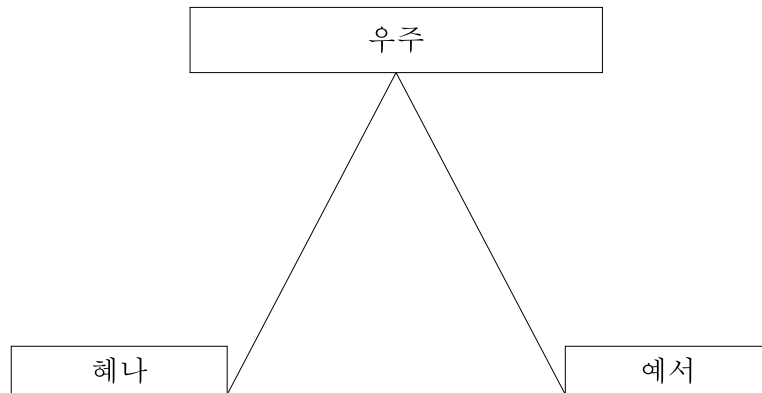
가족의 공동 욕망을 실현하기 위해 예서의 의대 진학은 반드시 실현되어야 하는 가족 구성원의 목표이다. 서울의대 진학을 위해서라면 고액의 코디를 마다하지 않을 만큼 교육에 대한 욕구가 강하다. 이러한 내용을 그림으로 정리하면 다음 [그림 IV-2]와 같다.



[그림 IV-2] 한서진·강준상 가족의 욕망의 구조

반면에 예서는 극중 자신과 경쟁관계인 혜나로 인해 1등에 대한 집착이 강하다. 우주가 나타나기 전에는 엄마, 아빠, 할머니의 꿈인 서울의대에 진학만을 목표로 하였다. 그러나 우주라는 남학생이 진학 오면서 조금씩 그를 좋아하는 마음이 생기게 된다. 늘 1, 2등을 다투어 왔던 경쟁자인 혜나를 우주가 좋아하는 것을 알고 난 후로는 학생회장 선거든, 성적이든 그 어떤 상황에서도 혜나를 이기는 데 몰두한다.

혜나는 예서의 욕망을 알고 나서 그 욕망을 이용하는 등 주체와 중개자가 계속 교차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내적 중개자를 통한 욕망의 발생은 삼각형 구조로 도식화할 수 있다. 르네 지라르의 욕망의 삼각형 구조에 따라 예서의 욕망 구조를 보면 다음 [그림 IV-3]과 같다.



[그림 IV-3] 강예서의 욕망의 삼각형

예서라는 주체와 혜나라는 중개자는 같은 드라마 속 인물로써 거리가 가깝다. 우주라는 남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서로 경쟁하고 있으며, 혜나로 인해 우주에 대한 예서의 마음이 더 커지고 있음을 다음의 지문을 통해 짐작할 수 있다.

(도서관에서 빌린)책 대여섯권을 힘들게 들고 걸어오던 혜나에게 우주. “들어줄까?” 물으면, 우주를 바라보는 예서의 눈빛에서 예서의 감정을 충분히 직감한 혜나, 평소같으면 거절했을 텐데, “그래줄래?” 선뜻 책을 건네는 혜나. 받아드는 우주와 나란히 웃으며 예서 옆을 지나가는 혜나. 질투의 감정을 감추지 못하는 예서의 얼굴 위로.

<스카이캐슬> 드라마 대본집, 292쪽

강준상이 아빠라는 사실을 알고 난 후 혜나의 욕망은 더욱 강하게 표현된다. 예서의 집에 예빈의 입주 과외 선생님이 들어가면서 예서 대신 자신이 될 수 있었던 딸의 자리를 욕망한다. 자신이 누리지 못하는 것을 누리고 있는 예서에 대한 질투심과, 한서진에 대한 질투심이 크며, 강준상에게 스스로 딸로서 인정받기 위해 예서보다 앞서고 싶어 한다.

그래서 예서가 가고자 하는 서울의대에 자신도 짐작하게 되었으며, 부모의 도움 없이 온전한 자신의 노력으로 서울의대에 진학해 능력을 인정받고 싶어 한다. 예서가 가진 모든 것을 부러워하면서도 티를 내진 않는다.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기에 때문에 교육에 대한 집착이 강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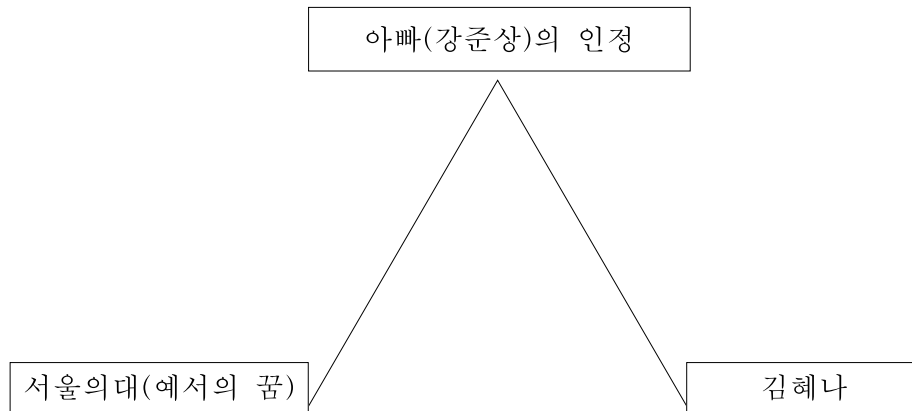
[그림 IV-4] 김혜나의 욕망의 구조

“예서가 서울의대 떨어지고 니가 붙어야... 아빠랑 할머니가 널 인정해 줄 것 같니? 그래서 이러는 거야??”

“네 맞아요! 코디 없이도 서울의대 붙어서 내가 강예서보다 더 뛰어나다는 걸, 울 엄마가 예서 엄마보다 훨씬 더 훌륭하다는 걸... 증명하고 싶어요.”

-김주영 김혜나의 대화, 16화

이러한 혜나의 욕망은 다음 그림 [그림 IV-5]와 같이 삼각형 구조로 보여 줄 수도 있다. 혜나라는 주체는 자신의 욕망을 예서의 욕망과 동일시한다. 대상인 강준상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강준상이 바라는 3대째 의사가문을 이뤄 주어 자신을 증명하고, 예서보다 자신이 더 낫다는 것을 강준상에게 보여주고 싶어한다. 그래서 결국엔 딸로서 당당하게 나타나고 싶어 하는 것이다. 의대 진학에 대한 욕망은 혜나 자신의 내부에서 스스로 발생한 욕망이 아닌 아빠의 인정을 받고자 예서의 꿈에 의해 간접화된 욕망의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IV-5] 김혜나의 욕망의 삼각형

2) 가족 명예유지를 위한 욕망유형 : 이명주·박수창 가족

전업주부인 이명주의 남편은 주남대 의사다. 스카이 캐슬에 사는 전형적인 상류층이다. 이명주는 아들 박영재가 서울의대에 진학하길 희망한다. 그 이면에는 3대째 의사가문을 이루고자 하는 욕망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통해 가문의 명예와 부를 이어가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부는 누구보다 아들의 의대 진학을 염원하며, 자식의 교육에 매달린다. 이 부부에게 교육은 자식의 성공을 위한 도구이고, 자식의 성공으로 3대째 의사가문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이다. 영재는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에 힘들어 하다 가을이라는 가정부의 딸을 좋아하게 된다. 그러나 이명주·박수창 부부는 영재가 마음을 뺏긴 가을이를 출신 성분이 다르다는 이유로 인정하지 않는다.

“날 사랑한다고? 차라리 솔직히 말해, 자랑거리가 필요하다고!! 삼대째 의사 가문? 그게 그렇게 좋아? 날 죽일 만큼??? 못 배웠다고 가을이를 벌레 취급하면서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의사야말로 최고의 직업이라고? 저 따위가 무슨 의사야?? 저런 것들이 내 부모라는 게 끔찍하다!!!”

- 박영재의 대사, 2화

위의 대사에서 알 수 있듯 이명주·박수창 부부는 교육에 대한 욕구가 비교적 높은 편이다. 이명주·박수창 부부는 신분에 대한 집착과 자식의 성공에 대한 집

착이 강한 편이며, 고액의 입시코디네이터를 쓸 만큼 교육에 대한 투자도 아낌없다. 이후 아들의 의대진학을 이뤄내며 3대째 의사가문이라는 욕망을 실현한다. 이를 그림으로 정리하면 다음 [그림 IV-6]과 같다.



[그림 IV-6] 이명주·박수창 가족의 욕망의 구조

3) 교육욕망의 구조가 변화하는 유형 : 노승혜·차민혁 가족

노승혜의 목적과 차민혁의 욕망은 비슷한 듯 다른 욕망을 나타낸다. 드라마 초반부에는 노승혜와 차민혁은 둘 다 자식의 성공을 통해 가문의 명예를 이어가고자 자식들의 명문대학 진학을 욕망한다. 그래서 노승혜는 차민혁의 조력을 받아 영재의 포트폴리오를 얻기 위해 노력하고, 코디를 알선해주는 은행 VIP행사 티켓도 손에 넣는다. 하지만 노승혜는 한편으로 자식들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며 안타까워한다. 그러다 큰딸 세리의 하버드대학 거짓말 사건이 터지면서 자식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한번 고민하게 된다. 그러면서 삼각형 구조를 깨고 나오며 자식들의 꿈을 응원해주고 지지해주는 엄마의 모습으로 변

화한다. 다음의 대사가 노승혜의 가치관이 변화하는 상황을 잘 보여주고 있다.

“제가 늘 애들아빠 열정을 못따라가서 미안하죠! 언니처럼 완벽하게, 아이들을 케어하고 싶은데... 저 좀 가르쳐주시면 안돼요?”

-노승혜의 대사, 1화

“다들 자기 직업을 자식들에게 물려주고 싶어 하니까요. 대를 이어 의술 만들고 법조인을 만들어 대대손손 영광을 누리고픈 욕망, 솔직히 난 그것까진 뭐라고 못하겠어요. 나도 똑같은 맘이니까.”

-노승혜의 대사, 5화

“지가 재밌다는데, 지가 좋다는데, 제발 저 하고싶은 일하게”

-노승혜의 대사, 15화

“세 아이의 엄마로서 차민혁씨의 강압적이고 폭력적인 교육방식으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하지 못하고, 근 이십년간 아이들이 당해 온 고통을 방관한... 저 자신을 깊이 반성합니다.

-노승혜의 대사, 18화

그리고 이러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 [그림 IV-7]과 같다.



[그림 IV-7] 노승혜·차민혁 가족의 욕망의 구조

위의 그림에서 볼 수 있듯 차민혁은 두 가지 강한 욕망을 드러낸다. 하나는 신분에 대한 콤플렉스를 극복하는 것이며, 자신으로부터 시작해 가문을 한국의 ‘케네디가’로 만드는 것이 목표이다. 즉, 자식의 성공을 통해 다른 캐슬 내 가족들처럼 소위 말하는 금수저인 명문가를 만들어 출신에 대한 콤플렉스를 극복하고자 하는 것이다.

차민혁은 피라미드를 통해 자식들에게 사회적 계층 구조를 주입하려고 한다. 자식들을 명문대 진학시키는 것이 자신의 욕망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이라 생각한다. 그래서 차민혁은 자식 교육에 대해 관심이 많고 교육 욕구 역시 강한 편이다. 다음의 대사들을 통해 차민혁의 교육가치관과 욕망의 구조를 파악할 수 있다.

“그러게요, 차교수님이야 곧 한국의 케네디 가문을 만드실 분 아니에요?”

“저뿐만이 아니죠. 여기 이 스카이 캐슬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다 가문의 전통을

중시하시는 분들이 많습니까?”

-이명주와 차민혁의 대화, 1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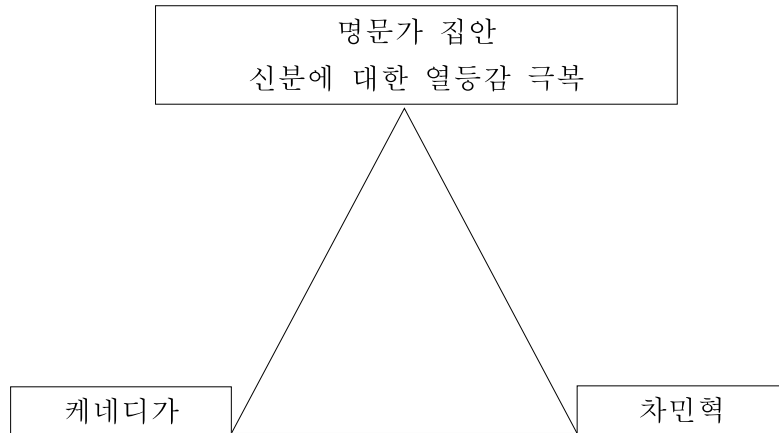
“아빠가 못할 것 같애? 넌 아빠처럼 밑바닥에서 출발하는 게 아냐. 이미 아빠가 기반을 다~댤아놨잖아! 니가 조금만 힘을 내면 꼭대기까지 순탄하게 올라갈 수 있어!”

-차민혁의 대사, 4화

“여, 열등감?”

“에서 아빠도 수한이 아빠도 다 의사 아들들인데 당신만 세탁소 집 아들이란 열등감요, 내 말이 틀려요?”

-노승혜와 차민혁의 대화, 4화



[그림 IV-8] 차민혁의 욕망의 삼각형

위의 [그림 IV-8]의 삼각형을 살펴보면 주체인 차민혁이 ‘케네디가’라는 중개자를 모방하여 명문가 집안을 이루고자 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는 돈키호테가 아마디스를 모방하여 이상적인 기사도를 이루고자 하는 형태의 욕망 구조와 동일하다. 차민혁은 출신에 대한 콤플렉스를 극복하고 후손들이 명문가 집안으로 대대손손 누리길 욕망하기에 위와 같은 삼각형 구도가 나오게 된다.

4) 교육욕망의 구조가 변화하는 유형 : 진진희·우양우 가족

강남 건물주의 딸로 자란 진진희는 물질적으로 부족함 없이 자랐으며, 남편도 주남대 의사로 부족함에 대한 콤플렉스가 없다. 다른 가족들을 보며 자신도 대대손손 명문가를 만들고 싶지만, 아들 수한은 공부를 썩 잘하지 못한다. 그래서 진진희의 삼각형은 한서진, 이명주를 롤모델로써 여기며 명문가를 이루고자 자식의 교육에 열을 올리다가도 아들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 또 마음이 약해지며 교육에 대한 가치관이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아들의 명문대 입시 성공으로 가문의 명예를 유지하는 것과 아들의 행복 사이에서 고민하는 등장인물이다. 자신들의 욕구를 이루고자 하는 욕망이 강한 세 집안에 비해 부모의 욕망이 크지 않으며, 자식에 대한 교육 욕구도 그렇게 강하지 않은 편이다. 이상을 그림으로 표현하면 다음 [그림 IV-9]와 같다.



[그림 IV-9] 진진희·우양우 가족의 욕망의 구조

“엄마안, 우리 수한이가 아빠처럼 의사가 됐음 좋겠다야 싶다가도, 울 아들이 이렇게 고생하는 것 보면 그냥 행복하게, 건강하게만 자랐음 좋겠다야 싶기도 하고... 아 침저녁으로 마음이 바뀌어. 뭐가 맞는지 엄마도 사실 모르겠어.”

-진진희의 대사, 6화

5) 교육자체가 목적인 욕망유형 : 이수임·황치영 가족

고아원을 운영하는 부모님 밑에서 자란 이수임과 그 고아원에서 자란 황치영은 아들의 생각을 늘 응원해주고 지지해준다. 다른 가족들과는 달리 아들의 성적이나 대학입시에 연연해하지 않으며, 사회적 기호 획득에 대한 욕심이 없다. 친구들과 잘 지내고, 주체적인 생각을 하고, 자신의 꿈을 찾아가는 것을 응원한다. 그래서 같은 캐슬 내 아이들이 부모의 욕망으로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며 안타까움을 숨기지 못한다. 교육의 목표는 아이들의 행복이며 그래서 결말 부분에 아들 우주가 학교를 자퇴하고 자신의 꿈이 무엇인지 고민하는 시간을 갖겠다고 할 때에도 적극적으로 응원해준다. 다른 가족들에게서 나오는 교육적 욕망의 구조와 다른 유형이다. 다음의 대사를 통해 이수임이 가진 교육 가치관을 들여다 볼 수 있다.



[그림 IV-10] 이수임·황치영 가족의 욕망의 구조

“너무 궁금해서요. 우주 엄마가 뭘 어떻게 하셨길래 사교육도 안 시켰다는데… 그렇게 공부 잘할까? 저도 안 시킬 수만 있다면, 정말 안시키고 싶거든요.

“(미소로) 비결이랄 건 없어요, 그저 우리 우주가 원하는 대로, 애 눈높이에서 생각하려고 애쓴 게 전부데요 뭐.”

-노승혜와 이수임의 대화, 3화

“니 남편 보육원 출신이랬지? 개천에서 용 된 남편을 만났으면 정신을 차려야지. 니 아들 그렇게 방치하다 명문대 못가면, 이 빌어먹을 경쟁 사회에서 니 남편만큼이나 개가 살 수 있을 것 같애?”

“설사 지 아빠만큼 못산다 해도 난 우리 우주가 행복하면(돼)”

-한서진 이수임의 대화, 5화

“영재네에서 일어난 엄청난 비극이 여러분들한테 그 어떤 영향도 미치지 못한 게 절망스러워서요!! 아니, 입시 경쟁으로 해마다 수많은 아이들이 죽어가는 데도, 우리 사회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게 비통하다 못해 참담해서요!!”

-이수임의 대사, 9화

4. 드라마 속 인물의 욕망 형태

등장인물의 욕망 구조분석을 통해 각각의 인물의 욕망이 무엇이며, 이러한 욕망이 어떻게 발생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등장인물의 욕망을 분석한 결과 크게 세 가지 형태로 드라마 속에서 교육적 욕망이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드라마속 등장인물의 욕망이 발생하는 구조를 기준으로 삼각형 구도로 설명할 수 있는 교육욕망 유형, 삼각형 구조를 깨고 나오는 과도기적 교육욕망유형, 삼각형 구도밖에 있는 교육욕망유형으로 나누었다. 그리고 교육열이 나타나는 형태를 기준으로 삼각형 구도로 설명할 수 있는 교육욕망유형은 ‘교육의 도구화 유형’으로 과도기적 교육욕망유형은 ‘교육 목적 부재 유형’, 삼각형 구도밖에 있는 교육욕망 유형은 ‘교육 본질 추구 유형’으로 정의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먼저 삼각형 구도로 욕망의 발생 구도가 설명되는 등장인물이다. 대부분의 등장인물에게서 나타나는 유형이다. 대표적으로 박수창, 이명주, 강준상, 한서진, 윤여사, 차민혁, 김혜나가 있다. 이 욕망의 구조를 나타내는 등장인물들은 공통적으로 사회적 기호획득이라는 중개자를 가진 욕망의 구조로 설명할 수 있다. 각각의 인물은 사회적 기호인 명예, 신분 등을 얻고자하는 사회적 욕망이 암시되어 있다. 인물 내부에서 나타난 욕망이 아닌 사회적 욕망이 간접화되어 다른 사람들이 욕망하는 대상을 욕망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교육은 자신들의 욕망을 실현하기 위해 수단으로써 활용된다. 따라서 욕망의 강도가 강하게 나타나게 된다. 또한 사람들이 원하는 가치는 다양함으로 그 속에서도 다양한 목적을 나타내기도 한다. 박수창, 이명주, 강준상, 한서진, 윤여사, 차민혁은 가문의 명예를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개인적인 욕망인 신분에 대한 콤플렉스를 극복하기 위한 욕망을 드러내는 등장인물로는 한서진, 차민혁이 있었는데, 둘 다 자신이 서민층에서 상류층으로 변화하며 자신의 존재감에 대한 불안함으로 생겨난 욕망이었다. 마지막으로 혜나는 아빠의 인정을 받기 위해 교육에 대한 욕망이 크며, 개인적인 욕망을 실현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한서진, 차민혁과 같은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혜나는 드라마 속에서 극적 긴장감을 위해 설정한 등장인물이기 때문에 논의를 확장하여 한국사회의 교육열의 양상으로 유형화할 때에는 제외했다. 이렇게 삼각형으로 욕망의 구조를 설명할 수 있는 등장인물의 교육유형은 교육을 어떤 다른 목적을 위한 도구로 활용이라고 정리할 수 있었다.

그리고 삼각형 구도에서 욕망이 드러났다가도 삼각형을 벗어나는, 과도기적 교육욕망을 보이는 등장인물로 우양우, 진진희가 있다. 교육을 통한 사회적 지위를 유지하는 것에 대해 욕망하면서도 아이가 힘들어 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진진희는 ‘과연 이게 맞을까?’라는 생각을 갖는다. 이러한 교육 유형 역시 현실과 동떨어진 모습이 아니라 현대사회에서도 실제 나타나는 유형이다. 노승혜는 이렇게 갈팡질팡하다 삼각형 틀을 벗어나는 인물로 변화를 보여주는 등장인물이라는 점에서 교육 목적 부재 유형에 포함시켰다. 노승혜도 남편의 강압적인 교육방법을 알면서도 대학 입시가 중요한 한국사회에서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힘들어도 견뎌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큰딸의 거짓말로 과연 아이들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를 고민하며 삼각형 구도가 아닌 그 틀을 벗어나는 유형을 보여주고 있

다.

마지막으로 교육열의 발생구도를 삼각형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삼각형구도 밖에 있는 교육욕망의 유형이다. 대표적으로 이수임, 황치영 부부가 있다. 이는 작가가 바라는 교육의 모습이기도 하며 이 드라마가 사회에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기도 하다. 이수임, 황치영 부부는 아이의 행복을 가장 우선으로 생각하며 교육 그 자체에 대한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렇기때문에 중개자를 매개로 교육에 대한 욕망을 나타내지 않는다. 그래서 이들은 교육을 그 자체로 목적으로 하는 유형으로 분류하였으며 교육을 도구로써 활용하고자 하는 강도인 교육열의 강도도 약하다고 할 수 있다. 이상 분석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 [표IV-1]과 같다.

[표 IV-1] 등장인물별 교육의 목표 및 욕망의 강도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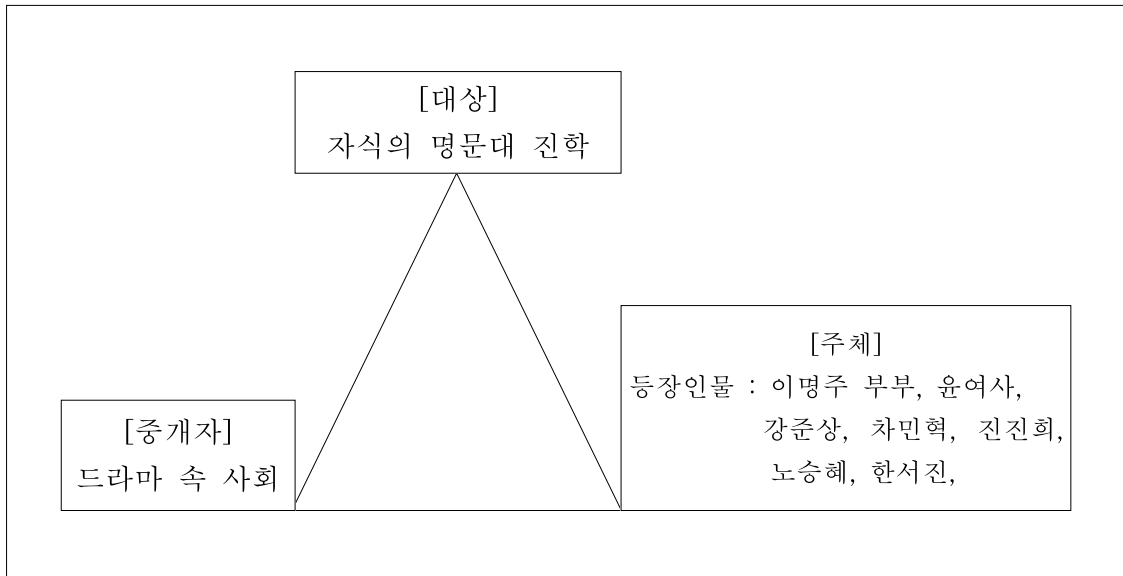
교육욕망의 발생 구조	교육의 목적		등장인물	욕망의 강도	교육열의 유형
삼각형 구도의 교육욕망 유형	가문의 명예		박수창, 이명주 강준상, 한서진, 윤여사 차민혁	강함	교육의 도구화 유형
	개인 욕망 실현	신분 콤플렉스 극복	한서진 차민혁		
		아빠의 인정	김혜나		
삼각형을 깨고 나오는 과도기적 교육욕망 유형	가문의 명예<->교육의 본질		우양우,진진희/ 노승혜	강함<->약함	교육목적 부재 유형
삼각형구도 밖에 있는 교육욕망 유형	교육 그 자체, 본질		이수임, 황치영	약함	교육 본질 추구 유형

V. 드라마 <스카이캐슬>에서 재현한 한국의 교육열

지금까지 드라마 속 인물의 욕망이 어떻게 발생하는가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 장에서는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등장인물의 교육 욕망이 나타나는 형태에 따라 분류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앞서 [표 IV-1]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교육열이 나타나는 유형은 크게 세 가지로 첫 번째로 교육의 도구화 유형, 두 번째는 교육 목적 부재 유형, 세 번째는 교육 본질 추구 유형이다. <스카이캐슬>의 등장인물 대부분의 유형이 교육의 도구화 유형이었는데, 이 유형의 등장인물의 욕망의 발생 구조는 르네 지라르의 삼각형 이론에 적용해 설명할 수 있었다.

1. 르네 지라르의 모방에 의한 교육열

르네 지라르의 삼각형 이론에 의하면 욕망은 자연발생적으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중개자의 욕망을 모방하여 생겨난다. 등장인물들에게 ‘드라마 속 사회’는 각자 다른 기호에 대한 욕망을 심어 주었으며 이를 실현시켜 줄 수 있는 방법은 ‘자식의 대입 성공’, 즉 명문대 진학이다. 그리고 자식의 대학입시를 위해 교육에 집착하게 되고, 교육에 대한 욕망이 커지게 된다. 교육에는 수많은 가치가 있음에도 결국 대학입시를 위한 도구로 전락하고 만다. 교육열은 교육에 대한 욕망이자, 자신의 욕망을 실현하기 위해 교육을 활용하고자 하는 욕망이 되는 것이다. 결국 드라마 속 부모의 욕망은 자연발생적이기 보다는 사회라는 중개자를 모방함으로써 간접화된 가짜 욕망이다. 이를 그림으로 정리하면 다음 [그림 V-1]과 같다.



[그림 V-1] <스카이캐슬> 속 욕망의 삼각형

모방으로 인한 교육열은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를 발생시킨다. 드라마에서도 이런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스카이캐슬>은 ‘서울의대’라는 목표를 설정해 놓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부모들의 다양한 노력을 소재로 삼고 있다. 교육이 도구로 전략해 버린 상황에서 도덕적 가치에 대한 인지보다는 결과만 좋으면 된다는 결과주의적 사고가 드라마 사건들의 배경에 깔려있다. 드라마 속 교육열은 사건과 사고의 발단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는 현실에서도 다르지 않은 현상을 보이고 있다. 드라마와 마찬가지로 현실에서도 고액 과외가 서슴없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교육에서도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고액 입시 코디네이터를 고용하여 학생부종합전형을 대비한다거나 시험지를 유출하여 시험성적을 조작하는 등 현실에서도 나타나는 이러한 현상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2. <스카이캐슬> 에 드러난 한국의 교육적 욕망의 구조

앞서 인물의 욕망구조 분석 통해 각각의 등장인물별 교육열의 발생구조를 밝히고 교육의 목표가 무엇인지 교육열의 강도가 어떠한지를 분석하였다. 드라마 속 인물들이 현실 속 다양한 입장을 재현한다고 봤을 때, 각 등장인물의 분석은 현실 사회 속 다양한 교육열에 대한 유형을 파악하기에 유용하다. 따라서 등장인물이 나타내는 교육열의 유형에 따라 ‘교육의 도구화 유형’, ‘교육 목적 부재 유형’, ‘교육 본질 추구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교육의 도구화 유형은 르네 지라르가 제시한 욕망의 삼각형 구도로 설명할 수 있는 욕망의 발생구조가 교육열로 나타나는 형태를 의미하는데, 주체의 욕망이 중개자를 매개로 발생한다는 점에서 교육 자체의 목적이 아닌 교육이 수단으로 활용된다. 이런 교육열의 형태 속에 내재된 목적을 살펴보면 세부적으로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먼저 우양우, 진진희, 박수창, 이명주, 강준상, 한서진, 윤여사, 차민혁은 그들 가문의 명예를 유지하기 위해 교육을 활용하고 있었으며, 한서진, 차민혁은 자신의 신분에 대한 콤플렉스를 극복하고자 교육을 활용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등장인물이 나타내는 유형을 강창동(2004)의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중개자의 기호가 무엇인가에 따라 두 분류로 유형화 할 수 있었다. 강창동(2004)에 의하면 교육열을 사회사적 특성을 기준으로 크게 지위지향적 교육열, 가족주의적 교육열, 상징주의적 교육열, 결과주의적 교육열로 나눌 수 있다. 이 중에서 <스카이캐슬> 속에서 적극적으로 드러났던 유형은 가문의 명예를 유지하기 위한 교육열과 지위지향적 교육열이었는데, 이 두 가지 유형의 뿌리가 어디서부터 나오며 현대사회에서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각각의 부모에게 간접화된 욕망의 실체가 무엇인가 분석하고자 한다.

삼각형 구도를 나타내기는 하지만 교육에 대한 가치관이 명확하지 않은 유형도 있다. 대표적으로 우양우와 진진희인데, 교육에 대한 입장이 처음에는 가문의 명예를 유지하고자 하는 욕망에서 비롯된 형태를 보여주다가 이후 아들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서는 사교육을 포기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한다. 이러한

교육열의 유형을 나타내는 등장인물을 교육 목적 부재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교육 목적 부재는 교육의 목적이 없다가보다는 여러 가지 교육가치관 속에서 끊임 없이 변화하는 인물을 의미한다. 노승혜는 진진희·우양우 부부와는 또 다른 삼각형의 모습을 보여주지만 삼각형 구도에서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교육 목적 부재 유형에 포함했다. 노승혜는 초반부에는 삼각형 구도로 욕망이 발생하다가 이후에는 그 삼각형 구도를 깨고 나오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교육 본질 추구 유형이다. 이 경우는 삼각형 구도 속에서 욕망이 발생하기 보다는 본질적인 교육의 가치를 중요시 하는 욕망이 발생한 구도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유형은 욕망이 발생하는 구조로는 삼각형 구도 밖에 있는 욕망 유형이며, 교육열이 나타나는 유형으로는 ‘교육본질 추구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대표적으로 이수임, 황치영 부부가 있다.

1) 교육의 도구화 유형

(1) 가문의 명예를 유지하기 위한 교육

“외국에선 한 가문이 몇 백 년 동안 성을 소유하곤 한다는... 제가 사색에 빠져 거닐었던 이 아름다운 캐슬의 숲길을, 제 후손들도 거닐 수 있다니... 이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차민혁의 대사, 1화

드라마 속 이러한 대사처럼 우리 사회에서도 가족의 문화를 중시하는 문화가 만연해 있다. 가족의 문화는 한 가정의 정체성으로 나타나 구성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현대사회에서 자주 회자되는 ‘개천에서 용은 나지 않는다.’ 라는 속담이나 흙수저, 은수저, 금수저로 구분하는 ‘수저계급론’의 용어를 보면 현대 한국사회 속 가문은 사회적 계층을 재생산하기 위한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물론 이렇게 가문을 이어가는 것이 현대사회에서만 나타나는 사회문화는 아니다. 강창동(2004)은 우리나라는 조선 중기 이후 종법제적 가족주의 도입에 따라 가문의 위세 경쟁이 촉발하게 되었으며, 이 때 가문의 위세를 나타내기 위한 문

중서원, 사우 및 가묘 같은 상징체 건립을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였다고 했다. 특히나 우리 사회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족보’가 조선시대 때부터 중요한 공적문서로서 역할을 하였는데, 족보의 사회적 지위를 높이는 가장 확실한 사회적 보증은 과거 합격이었다(강창동, 2004).

즉, 과거 합격은 개인의 입신양명뿐만 아니라 가족의 명예를 높이는 사회적 공인서였다. 그렇기때문에 집안 한 사람의 과거 합격을 위해 온 집안이 지원하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었다. 이에 대해 강창동(2004)은 ‘가족 신분주의’라고 하였고, 조한혜정(1996)은 ‘공리적 가족주의’라고 하였다. 여기서 공리적 가족주의란 가족이 가족 구성원에게 굳건한 보루로 안정감과 정체감을 주는 집단으로 가족 구성원 간 단결과 목표의식을 공유하는 것을 의미한다(조한혜정, 1996). 전통적인 사회부터 현대사회까지 가족 구성원인 개인의 성공은 가족 구성원 모두를 위한 성공인 것이며 더 나아가 가문의 명예를 유지하고 대대손손 가족의 명예를 물려줘야 한다는 일종의 의무로 작용하기도 한다.

조선시대에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정해져있었다. 남자여야하고 양반이어야 했다. 하지만 현재는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의 기본권으로 헌법에 명시되어 있다. 얼핏 보면 교육이라는 제도가 누구에게나 평등하고, 평등한 교육 과정을 거쳐 얻어낸 성취물이 공정한 것이라고 여겨진다. 이를 ‘능력주의’라고 하는데, 개인의 능력과 노력에 따른 보상이 담보되고 누구에게나 균등한 기회가 주어진다는 점에서, 능력주의는 공정하다는 인식이 확산되었다(남미자 외, 2019). 그러나 개인의 능력의 평가에 있어서 부모의 소득, 문화자본, 교육환경 등과 같은 비능력적 요소에 의한 영향을 분리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남미자 외, 2019; 윤초희, 2016: 274 에서 재인용).

그럼에도 불구하고 능력주의 이데올로기가 지배적인 사회에서는 개인의 사회적 성공 혹은 실패 모두 개인의 몫이 되며, 사회적 불평등을 개인의 능력 부족으로 둔갑시키고 차별을 정당화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능력주의 이데올로기는 사람들로 하여금 사회적 소수자가 겪는 차별이나 불이익에 대해서 보상받을만한 것이라고 여기기 보다 그들의 무능으로 여기는 “내성착각”에 사로잡히도록 한다(송봉, 2016). 결과에 의해 개인의 능력을 설명하게 되면서, 사회적 성공에 영향을 주는 것도 모두 개인의

능력이 된다. 심지어는 “부모를 잘 둔 것도 능력(강준만, 2016: 320)”으로 간주되면서, 능력주의는 세습적 귀족주의 형태로 재현되고 있다(남미자 외, 2019: 150)

즉, 능력주의 이데올로기가 지배적인 현대사회에서 개인의 능력만큼 중요한 것이 가정환경 및 부모의 교육수준, 직업, 소득, 부모의 인맥 등 모든 비능력적인 요소를 물려줄 수 있는 부모의 능력인 것이다. 이런 부모의 능력은 자식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주고, 그 자식들은 그런 배경을 바탕으로 재생성된 계층을 물려받는다. 즉, 가문이 중요한 이유는 개인이 계층을 재생산할 수 있는 든든한 밑바탕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드라마 속에서 재현되었듯 이러한 생각은 낯선 생각이 아니다. 드라마에서는 집안의 배경과 남편의 직업, 재정적 능력이 비슷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스카이크슬이 다른 사람들은 함부로 들어올 수 없는 그들만의 울타리로 작용한다. 그래서 사교육에 대한 정보를 자신들끼리만 공유하고 비슷한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함께 노력한다. 현실사회에서도 대표적 학군으로 대치동, 강남 8학군 등이 있으며 드라마와 비슷한 상황들이 연출된다. 이와 같이 비슷한 수준의 경제 지출을 할 수 있는 사람들끼리 모이고 집단을 형성하며 또 다른 계층을 만들어 낸다. 이는 비슷한 경제 소비 지출이 가능한 집단과 계층, 지역을 중심으로 하여 학교선택, 전학, 이사, 과외 선생 구인 등 교육정보 활동이 가치로 인정되고, 누구와 그것을 공유할 것인가 하는 구별짓기와 차별화, 경계가 형성(안우환·김경식, 2005)되기 때문이다.

가문은 경제적 지원뿐만 아니라 문화적 자본을 공동으로 향유한다. 문화는 구성원이 그 집단에 속해 있다는 사실을 알아보게 하고 외부인과 내부인을 분리한다(조한혜정, 1996). 가문이 중요한 이유는 개인이 어디에서 출발할 수 있는지를 결정해주는 중요한 배경이기 때문이다. 개인의 성공은 또다시 가문의 명예를 이어가게 해준다. 이런 유기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가문과 개인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으며, 유기적인 관계가 더 단단해질 수 있도록 교육은 대입성공을 위한 완벽한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다. 교육이 수단으로써 사회의 계층을 재생산하는 역할을 하게 되면서 가문의 명예와 그들이 누릴 수 있는 지위 유지라는 다른 목적을 갖게 되고, 그에 따라 교육열은 점차 과잉되는 현상을 보여준다.

(2) 지위지향적 교육열 (학력주의)

교육을 통해 자신의 콤플렉스를 극복하고자 하는 형태이다.

한편, 교육의 상징적 자본에 가치를 두는 어머니들의 태도에는 자신들의 ‘학력 콤플렉스’가 감지되기도 한다. 어머니들 자신의 학력에 대한 콤플렉스가 자녀 교육지원의 주요한 동인으로 작동하고 있고, ‘교육’ 혹은 ‘지식’에 대한 가치부여 역시 학력에 대한 자신의 주관적 경험에 기반을 둔 학력 중시 사회에 대한 나름의 현실 판단에 근거하고 있었다(이민경, 2007: 166-167).

이는 드라마 속 등장인물 속에서도 재현되고 있는데, 차민혁과 한서진의 등장인물이다. 한서진의 부모는 시장에서 선지를 팔았다. 시어머니인 윤여사는 이런 출신배경을 가진 한서진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서진은 자신의 신분을 위조하기에 이른다. 한서진은 자신의 콤플렉스인 출신을 극복하는 방법으로 윤여사가 바라는 바를 이루어주고자 했고, 그것은 3대째 의사가문을 만들어 가문의 명예를 유지하는 일이다.

차민혁 역시 세탁소집 아들이라는 콤플렉스를 극복하고 이후의 후손들이 가문의 전통을 만들어가길 희망하며 자식의 교육에 집착하는 양상을 보인다. 출신성분을 극복하는 것이나, 또는 자신이 받지 못한 교육을 자식에게만큼은 해주고 싶다는 부모의 바람이나, 이 모든 의지의 근간에는 자신의 콤플렉스를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가 깔려있다. 현대사회에서는 이러한 욕망을 학력을 성취함으로써 해소하게 되는데, 학력에 대해 강창동은 아래와 같이 이야기하고 있다.

학력은 실제적 실력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상징적 가치를 지닌 제도화된 학교의 경력을 의미한다. 학력주의는 제도화된 학교 경력인 학력이 사회적 지위를 결정하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학력은 현대사회에서 신분과 지위를 결정하는 표준화된 능력의 대리 지표로 이용되고 있다(강창동, 2004: 155).

즉 학력주의라는 사회의 욕망이 한서진과 차민혁을 비롯해 비슷한 상황에 놓인 부모들에게 그대로 간접화되어 욕망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현대사회에서

의 학력은 개인이 학문적 습득을 위해 교육 경력을 쌓아간다는 의미보다 학력을 통해 사회적 지위와 직업적 지위가 결정된다는 사회적 의미를 깊이 내포하고 있다. 즉 신분의 상승을 위해서 학력은 필수 사항이 되었으며, 이는 하루아침에 형성된 문화가 아닌 꽤 오랜 역사 속에서 형성된 교육 문화이다. 이는 역사 속 과거제도를 통해 살펴 볼 수 있다.

조선 시대 실시되었던 과거제는 객관적인 인재를 선발하기 위한 제도로, 누구나 응시할 수 있다는 보편주의적 이념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조선시대에 사대부들이 지도층을 형성하는 계급사회였기에 결국 과거는 사대부를 관료로 뽑는 시험이 되었다. 이에 갑오개혁(1894)에서 과거제를 폐지하였으며,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을 추천하여 시험을 통해 하급 관리를 선발하였다. 일제 강점기 때는 식민사관교육을 위한 보통교육은 확대되었지만 고등교육에 대한 기회는 축소되었다. 결국 이념적인 수준에서 보면 학교교육은 누구에게나 개방되어 있었으나 실제적으로는 학교설립의 철저한 제한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매우 폐쇄되어 있었다(강창동, 1994). 실제적으로 교육기회는 소수의 엘리트에게만 돌아갔고, 소수 엘리트의 직업적 지위를 보장해줌으로써 학력의 가치는 지위의 연결 통로로 관련을 가지게 되었다(강창동, 1994).

해방 후 산업경제의 발전에 따라 사회이동이 활발하게 나타났다. 이때 사회이동을 위한 중요한 지표는 학력이었다. 고등교육이 보편화 되면서 누구에게나 대학입시에 대한 기회가 주어지면서 학력에 따른 지위분배나 임금격차 같은 사회적 차별화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학력에 따라 직업적 지위가 결정되면서 학력에 대한 집착은 강해졌고, 대입과 관련한 각종 사회문제가 대두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학력 인플레이션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학력에 대한 수요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강창동(1994)은 학력수준에 따른 임금격차에 대해 사회적으로 정당하다고 간주하는 인식이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즉 학력이 사회적 능력을 나타내 주는 합리적 지표로서, 학력 수준에 따라 능력이 달라진다는 것이다(강창동, 1994).

2) 교육 목적 부재 유형

교육 목적 부재 유형을 보여주고 있는 가족은 우양우·진진희 부부와 노승혜이

다. 우양우·진진희 부부의 경우 외아들인 수한이 자신의 꿈을 찾기를 바라면서도 가문의 명예를 위한 대입시 교육을 놓지 않는다.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보통엄마’(정민승, 2019)의 모습이다. 우양우·진진희 부부는 다른 부모의 교육열을 따른다. 교육에 대한 가치관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로 대세를 따라가며, 그러면서도 아이가 힘들어 할 때면 이런 방법으로 대학에 보내는 게 맞는건가 하는 고민을 하게 된다. 주변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유형이자 보통의 부모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노승혜 역시 처음에는 남편의 교육 가치관을 따라가다가 큰딸 세리의 거짓말 이후 큰 회의감을 느낀다. 대학입학이 곧 아이들의 미래를 좌우할 것이라는 생각으로 차민혁의 강압적인 교육에 아이들이 힘들어하는 것을 눈감아 왔지만, 세리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찾겠다고 선언한 후 노승혜도 그것을 응원하는 엄마의 모습으로 변화한다. 드라마 후반부에는 남편인 차민혁까지 설득하여 가족이 모두 삼각형 구도를 벗어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노승혜·차민혁 부부의 유형은 현실적인 유형은 사회적으로 교육에 대한 가치관이 점차 변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또 하나의 교육 유형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3) 교육 본질 추구 유형

교육 자체의 목적을 추구하는 유형으로는 이수임·황치영 부부가 있다. 이 유형은 삼각형 구도로 설명이 어려운 구도이다. 왜냐하면 이수임·황치영 부부는 사회가 정해놓은 가치 기준이 아닌 아이가 원하는 바를 지원해주고 응원해주는 부류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유형에 속하는 이수임·황치영 부부는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 아이들이 원하는 것을 해줘야 한다는 교육관을 가지고 있다. 이는 현 한국사회구조에서 벗어나 새로운 사회구조를 그리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드라마 속에서는 작가가 궁극적으로 사회에 던지는 메시지이자 작가가 가진 교육에 대한 가치관이 반영된 인물로 볼 수 있다. 교육의 본질적인 목표를 추구해야 한다는 목적으로 한국사회에서도 틀을 벗어난 교육을 시도하려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유형도 하나의 교육에 대한 욕망으로 볼 수 있으며, 교육 본질을 추구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신창호(2017)는 교육을 여러 가지로 정의하기도 하는데 그중에서 이수임·황치영 부부의 교육열은 ‘규

범적 정의(신창호, 2012)’로 설명할 수 있다.

규범적 정의에서는 교육의 가치 실현을 위한, 교육 자체의 발전에 무게중심을 둔다(신창호, 2012). 그리고 규범적 정의에 따른 교육은 인간에게서 기본적인 규범에 해당하는 인격완성이나 자아실현 등은, 내재적 가치의 실현이자 진리를 추구하는 보이지 않는 작업이라 객관화하기 어려워 주관적일 수 있다(신창호, 2012).

이러한 유형에서 내리는 교육에 대한 정의는 ‘교육활동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내재적 목적과 외재적 목적으로 구분한다(신창호, 2012). 이수임·황치영 부부에게서 나타나는 형태의 교육유형은 교육활동을 교육의 내재적 목적, 즉 교육활동 내에서 인생의 의미와 가치, 이상을 발견하려는(신창호, 2012) 유형으로 볼 수 있다.

작가가 이상적으로 생각한 교육에 대한 욕망의 유형은 교육이 그 자체로 목적인 유형이다. 이와 비슷하게 교육의 역할을 정의하고 있는 이규호(1977)의 연구를 살펴보면, 교육을 인간사회에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교육 작용으로 설명하고 있다. 생물적 차원에서 성장을 위한 교육을 시작으로, 문화적 전승을 위한 교육을 거쳐, 자아의식을 불러일으키는 ‘이상적’ 차원의 교육으로 개인과 사회의 가치와 의미에 눈뜨게 한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인격적 차원에서 한 인간이 삶의 방향을 전환하고 절대적 세계관이나 신념에 도달하는 과정으로 이것이 교육 작용에서 가장 중요한 본질인 것이다(이규호, 1977: 58-68; 신창호, 2012: 65-66에서 재인용).

VI.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의 연구 문제는 크게 3가지이다.

첫째 <스카이캐슬>에 드러난 교육적 욕망은 어떻게 구조화되었는가에 대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사람들의 교육적 욕망은 자연발생적으로 사람들 내부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욕망에 의해 암시되어 발생한 욕망이다. <스카이캐슬>에서 부각 되는 내용은 ‘교육열’ 또는 ‘욕망’이라는 단어다. <스카이캐슬>은 ‘욕망’을 통해 교육열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다. 르네 지라르의 욕망의 삼각형이론을 통해서 크게 드라마를 관통하는 삼각형을 도출할 수 있으며, 또한 드라마 속 인물 각각이 가진 욕망의 발생 구조를 파악하고 인물간의 삼각형을 통해 서로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받고 있는지도 파악하기에 유용했다. 드라마를 관통하는 삼각형에서 주체는 사람 및 등장인물이며, 중개자는 사회의 욕망, 대상은 교육을 통해 얻고자 하는 목적이 된다.

교육적 욕망이 타인에 의해 발생한 욕망이라고 했던 선행연구는 다음과 같다. 교육에 대한 욕망인 교육열에 대해 강창동(2004)은 보드리야르와 라캉의 욕망이론을 통해 설명한다. 인간의 욕망 발생의 뿌리부터 찾아 역사적으로 어떻게 분출되었으며, 교육이 이 과정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였는지까지 분석한다. 또한 목영해도 라캉의 이론을 바탕으로 교육열의 발생구조를 분석하였다. 앞선 선행연구와 같이 교육열이 스스로 인간의 내부에서 나온 욕망이 아니라는 데에 의견을 같이 했다.

사람들이 사회의 욕망을 모방하는 데에는 다음과 같은 이유가 있다. 사회의 욕망인 남들과 구별짓기를 위한 욕망, 기호획득을 위한 욕망을 모방한 욕망이기 때문이다. 끊임없이 경쟁할 수밖에 없는 현대사회에서 사람들은 자신의 진짜 욕망이 무엇인가를 고민할 시간이 없다. 신자유주의사상이 교육에 침투하며 마치 교육이 공정한 것처럼 사람들에게 인식을 심어 주었고, 거기서 도태하면 실패자로 낙인찍히고 만다.

신자유주의 사상 속에서 나타난 능력주의 이데올로기는 사람들로 하여금 사회적 소수자가 겪는 차별이나 불이익에 대해서 보상받을만한 것이라고 여기기보다 그들의 무능으로 여기는 “내성착각”에 사로잡히도록 한다(남미자 외, 2019; 송복, 2016). 즉, 자기계발의 가능성은 개인의 자유 앞에 무한하게 열려 있으며, 자기 삶을 잘 가꾸지 못하는 데에서 오는 죄책감이나 잘못된 선택에 수반되는 책임은 철저히 개인의 몫(박지원·김회용, 2020)이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더 치열할 수밖에 없다. 이 과정에서 사람들은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기도 한다. 교환대상으로써 교육은 그 자체로 타자와의 구별짓기를 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미래에 더 나은 선택지에 접근하거나 그 가치를 선별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메타적인 기능을 하게(박지원·김회용, 2020) 되는 것이다.

둘째, <스카이캐슬>의 교육적 욕망의 구조와 한국교육의 현실과는 어떤 관련이 있는가에 대한 결론이다.

이는 드라마 속 주인공들의 목적이 과연 무엇인가를 분석함으로써 한국사회에서 나타나는 교육유형을 살펴볼 수 있었다. 교육은 사람들에게 유일하게 내가 남보다 앞서 갈 수 있는 기회이면서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작용하게 된다. 절실해진 욕망은 교육의 본질적인 가치보다 다른 가치를 더 중요하게 인식하게끔 만든다. 드라마 <스카이캐슬> 등장인물처럼 교육을 자신의 욕망을 실현하기 위한, 혹은 가족의 명예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이용하게 되는 것이다.

문제는 여기에 있다. 자신의 욕망을 실현하기 위한 도구로써 교육은 사람들로 하여금 끊임없이 학력주의에 대한 환상을 심어준다. 자신의 혹은 자녀의 학력에 대한 성취만이 자신의 존재감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자식의 교육에 열을 올리는 이유로 학부모들은 자신들의 결핍된 교육열에 대한 열등감과 콤플렉스(이민경, 2007)라고 하였으며, ‘자녀교육 성공’ 여부가 어머니로서의 능력 평가 기준이 되기 때문(이민경, 2007)이라고 했다.

이런 학력에 대한 집착은 자식도 함께 원하고 있는 것이라는 착각과 동시에 드라마 처음 이명주의 대사처럼 “대학만 가면 뭐든 다 좋아질 것”이라는 환상을 심어주게 된다. 남미자 외(2019)는 이런 부모의 교육적 욕망이 삶을 파괴할 수 있음을 경고하기도 한다. 드라마에서는 결국 이명주의 아들이 가출을 하고 이명

주가 자살하는 것으로 이 가족은 무너지고, 김주영도 자신의 손으로 자식을 교통 사고를 당하게 만든다.

뿐만아니라 가문의 유지를 위한 교육으로써 교육은 능력주의에 대한 폐해를 가리고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부정행위를 정당화 할 수 있게 한다. 한서진과 차민혁은 가문의 명예에 끊임없이 집착하며 자식에 대한 교육열을 합리화한다. 그 과정에서 차민혁과 한서진은 중간고사 예상 문제지와 학교회장 출마를 놓고 거래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차민혁은 자식들의 중간고사 성적을 위해 기꺼이 거래에 응한다. 또한 그렇게 얻은 시험지를 애지중지하는 모습도 보여주었다.

개인의 성공이 가문의 성공으로까지 이어지는 우리나라의 풍토로 인해 교육은 과거부터 온 가족의 관심사였다. 오늘날은 학교 시험 일정에 의해 가족모임이 연기되기도 하고, 자녀의 성적은 가족 간의 불화의 원인이 될(이민경, 2007)만큼 가족 내에서 아이들의 입시는 굉장히 중요하다. 드라마 속에서도 이런 장면은 자주 보인다. 한서진의 가족은 예서의 입시성공을 위해 예서의 컨디션, 공부환경 등을 위해 온 가족이 예서의 눈치를 보며 행동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리고 이런 모습은 한국의 현실에서 나타나는 가족의 모습을 투영한다.

셋째, <스카이캐슬>에서 드러난 교육적 욕망의 구조가 시사하는 바는 무엇인가에 대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한국사회에서는 교육이 대학입학과 동일시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현실 사회에서 이러한 부작용으로 터진 것이 입시비리 사건이다. 숙명여고 교무부장이었던 아빠를 둔 쌍둥이 자매의 성적 조작이 발각되면서 현재 대학입학 전형 중 하나인 학생부종합전형제도의 문제점이 하나둘씩 제기 되고 있다. 학교교육을 중심으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생부라는 전형자료에 무게를 두는 제도인(남미자 외 2019; 주영호·김상철, 2017) 학생부 종합전형이 이제 거꾸로 입시를 위해 학교생활을 조작하는 상황을 만들었다. 드라마 속에서 예서와 예서의 엄마가 생활기록부 한 줄을 위해 동아리 활동을 하거나, 학생회장에 출마하는 모습들이 현실에서도 심심치 않게 나타난다.

가장 극단적인 모습은 예빈의 도벽을 알고 있으면서도 학업의 스트레스를 풀기위한 행위 정도로만 인식하려는 한서진의 모습이다. 대학입학에만 성공할 수 있다면 그 과정에서 어떤 행위도 정당화하여 교육의 진정한 의미를 상실해버린

다. 아이들은 교육과정 속에서 영교육과정(null curriculum)이라고 불리우는 교육과정 외의 다양한 것들을 배워야 한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철저히 무시된 채 대학입학을 위한 교육에만 매달린다면 많은 부작용이 생길 것이다.

드라마 속의 욕망 분석을 통해 교육적 욕망이 어디서부터 발생되는지, 왜 그러한 교육적 욕망이 나오는지, 그리고 이러한 교육적 욕망이 한국사회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나타나는지 살펴보았다. 르네 지라르의 욕망의 삼각형을 통해 교육에 대한 욕망이 중개자를 매개로 생겨난다는 점에서 교육은 자신의 다른 목적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써 활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래서 본 연구의 초점은 교육이 도구로 활용된다는 교육의 ‘기능적 정의’(신창호, 2012)에 맞춰졌고 기능적 역할에 의한 다양한 역기능이 무엇인가로 이어졌다. 그러나 이수임·황치영 부부, 진진희·우양우 부부 등의 등장인물을 통해 이 외에도 교육의 유형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다.

이런 다양한 교육에 대한 정의와 교육열의 유형 중 절대적으로 한 가지가 옳다기보다는 여러 가지 관점이 조화롭게 이루어져야 한다. 이후 후속연구에서는 교육의 기능적 역할 외에도 다양한 관점에서의 교육에 대한 욕망의 유형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강준만(2016). 왜 부모를 잘 둔 것도 능력이 되었나? 능력주의 커뮤니케이션의 심리적 기제. **사회과학연구**, 55(2), 319-355.
- 강창동(2004). 한국의 교육문화와 사회적 신분 욕망의 관계에 대한 연구. **교육문제연구**, 21, 143-164.
- 강창동(2008). 한국의 편입증적 교육열과 신분 욕망에 대한 사회사적 고찰. **한국교육학연구**, 14(2), 5-32.
- 김교석(2019). 귀족들의 입시왕국 SKY캐슬. **월간샘터**, 116-117.
- 김모세·서종석(2015). <별에서 온 그대>(My Love from the star)에 나타난 욕망의 형이상학 - 르네 지라르의 욕망이론을 중심으로. **기호학연구**, 46, 7-38.
- 김성민(2015). 인간의 욕망과 모방-르네 지라르의 사회인류학적 관점에서-. **신학관신천**, 47, 237-266.
- 남미자·배정현·오수경(2019). 교육열, 능력주의 그리고 교육 공정성 담론의 재고: 드라마<SKY캐슬>의 담론 분석을 중심으로. **교육사회학연구**, 29(2), 131-167.
- 목영해(2015). 라캉의 욕망론에 의거한 교육열 분석. **교육철학연구**, 37(1), 1-20.
- 박지원·김희용(2020). 과도한 교육열과 신자유주의적 불안의 관계, **교육사상연구**, 34(1), 113-135.
- 박진희(2004). TV드라마에 나타난 욕망의 삼각형: 드라마 '발리에서 생긴 일'을 중심으로, **한국영상학회논문집**, 4, 41-52.
- 신창호(2012). **교육이란 무엇인가?**. 서울: 동문사.
- 안후환·김경식(2005). 가족 내 사회적 자본을 통한 학부모의 교육열 탐구, **중등교육연구**, 53(1), 29-50.
- 유현미(2019). **유현미 대본집 SKY 캐슬**. 경기: 위즈덤 하우스.
- 윤초희(2016). 우리 사회의 능력주의는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가?, **교육비평**, 37,

- 272-292.
- 이민경(2007). 중산층 어머니들의 자녀교육 담론: 자녀교육 지원태도에 대한 의미 분석, **교육사회학연구**, 17(3), 159-181.
- 이종각·김기수(2003). ‘교육열’ 개념의 비교와 재정의. **교육학연구**, 41(3), 191-214.
- 이종각(2013). 한국 학부모 교육열의 정책적 시사점과 새 연구 방향의 탐색. **한국교육**, 40(4), 121-153.
- 이풍인(2018). 르네 지라르의 모방적 경쟁심에 대한 연구 : 나쁜 모방에서 좋은 모방으로. **신학과학문**. 23(3). 217-241.
- 이혜정(2019). 교육 공정성에 관한 미디어 담론 분석: ‘숙명여고 사태’를 중심으로. **아시아교육연구**, 20(3). 853-882.
- 임주인(2003). 갈도스의 『뜨리스파나』와 플로베르의 『마담 보봐리』에 나타난 욕망 고찰 : 르네 지라르의 ‘욕망의 삼각형’을 중심으로. **서어서문연구**, 28, 443-457.
- 조한혜정·엄기호 외(2016). **노오력의 배신**. 파주: 창비.
- 주영호·김상철(2017). 학생부종합전형 정책 분석 및 개선 방안, **한국교육행정학회**, 35(1), 141-168.
- 한귀은(2019). TV드라마 <SKY 캐슬>에 나타난 욕망·응시·주체화, 국어교육, 165, 299-329.
- Girard, R.(1961). *Mensonge romantique et vérité romanesque*. 김치수·송의경 역(2001). 『낭만적 거짓과 소설적 진실』.서울: 한길사. Grasset.
- Girard, R.(1965). *Deceit, Desire and the Novel: self and Other in Literary Structure*. Trans.Yvonne Freccero(1961). Baltimore: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 Girard, R.(1978). *“To double business bound” : Essays on Literature, Mimesis, and Anthropology*. Baltimore.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 Kirwan, M.(2004). *Discovering Girard London*. Darton: Longman and Todd.
- 경남매일(2019.04.01.). 드라마 ‘<스카이캐슬>’ 우리의 교육 현실,

<http://www.gnmaeil.com/news/articleView.html?idxno=410447>. 2019. 04. 18.

인출.

노컷뉴스(2018.11.13.). [논평] 교육현장의 민낯 드러낸 숙명여고 시험지 유출사태.

<https://www.nocutnews.co.kr/news/5060479> 2020.06.10. 인출.

이데일리(2020.03.10.). 학생 1인당 월 사교육비 32.1만원... 역대 최고치 경신,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2860166625702008&mediaCodeNo=257&OutLnkChk=Y>. 2020.06.10. 인출.

조한혜정(1996). 가족주의와 사회변동, 전통이란 무엇인가? 문화와 정체성에 대한
담론. 조한혜정 홈페이지.

[https://chohanlab.net/index.php?mid=author_and_research&category=38507
&page=2&document_srl=54922](https://chohanlab.net/index.php?mid=author_and_research&category=38507&page=2&document_srl=54922) 2020.06.10.인출.

중앙일보 (2019.03.13.). '위기의 주부들' 스타까지...68억 규모 美명문대

입시비리, <https://news.joins.com/article/23409091>. 2019. 04. 12. 인출.

JTBC 드라마 <스카이캐슬>공식홈페이지

<http://tv.jtbc.joins.com/cast/PR10010969/19.2020.0610>. 인출.

[Abstract]

The Structure of Educational Sociology Desire in Drama
『SKY Castle』 :
-Based on Theory of Triangular Desire of René Girard.

Kim Jin Yeong

Educational Administration & Educational Consulting Major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Supervised by professor Jin-Geon Yang

The <Sky Castle> is a drama with up to 23.8 percent terrestrial ratings in 2019. Given the high rating of this drama, we should not belittle it just as interesting content. This is because the material of this drama is "education," and "education" has various special meanings in Korean society. When we talk about the drama <Sky Castle> we always hear the words "education fever" or "desire." This is because the drama <Sky Castle> looks at educational fever through "Desi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larify what structure of desire penetrates into Korean society and how it is being reproduced in Korean society. So, the first research question for this study is what René Girard's "Triangle of

Desire” is? Second, how the educational desire that emerged in <Sky castle> is structured? Third, what i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tructure of <Sky castle>’s educational desire and the reality of Korean education? Fourth, what is suggested by the structure of educational desire that <Sky castle> revealed?

As I suggested in the research question, I would reveal the generation of desire with René Girard’s “triangle of desire” theory. René Girard’s triangle theory of desire helped to understand the structure of the character’s desire in the drama and how it affects each other through the triangle between the characters. Each vertex of the triangle shows the subject who desires something, a mediator who suggests desire to the subject, and an object of their desire, respectively. If we bring this into the field of education, we can clarify where people’s desire for education arises.

If you look at it in place of the triangle of desire, the desire of the subject always mimics the desire of the mediator. In other words, human desire is an indirect desire by an mediator and does not occur naturally. The mediator is a structured social structure of human desire to acquire social preference, which serves as a basis for approaching from the viewpoint of educational sociology that the social structure can affect individual human desire.

Human desire is trying to acquire the symbol of social desire, namely, status, honor, educational background, etc., which is implied social desire. The society has established a system called “test” to distribute such social symbol equally. They tried to stabilize society and select people by giving everyone qualified equal opportunities. In the past, such an examination process in Korean society was the “과거제” and it became the “university entrance examination” in modern society. In our society, from the past to the present, has only changed the system but has not changed the people thinking that the only way to pass the exam is “education”. Education with the objective of acquiring social symbol has turned into a means rather than an education

itself, and children's desire for education has been created as a tool for achieving their own personal or family goals. Therefore, the desire can be seen as a desire that imitates the desire of society, rather than a desire that was raised in the depths of the parents' hearts.

For this research, René Girard's theory was analyzed, educational fever was analyzed through previous research, and the desire of the character in the drama was analyzed through the script book. At this time, the lines were mainly quoted directly or based on fingerprints, the desires of each character were derived. Therefore, I would clarify the characters' goals which they want to achieve through the education. After analyzing each character's desires, the phenomenon of enthusiasm for education in Korean society was derived by classifying commonalities.

We looked at the types of characters described in the triangle composition, the types of characters that escape the triangle composition, and the types of characters that wanders between the two types. In particular, the enthusiasm for education, which appears in the triangular structure, can be divided into two main types: the enthusiasm for education to maintain the honor of the family and the enthusiasm for position-oriented education to raise one's position. Finally, we summarized the types that were out of the triangle and pointed out what ideal educational forms the drama writer wanted.

This study looked at the educational fever of Korean society through the educational and sociological perspective. The enthusiasm for education in Korean society presented in this study is expected to help us understand the educational structure of Korean society, and further contribute to diagnosing problems in Korean.

Keywords : René Girard, Triangle of Desire, education fever, SkyCastle, desire